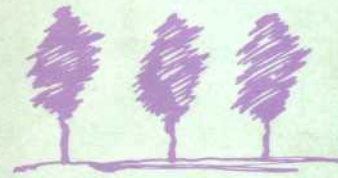


인권정보자료실
R1.15

인권하루소식

합본 V 호
(401호~500호)



1996. 2

인권운동사랑방

인권하루소식

합본 V 호 1996. 2

인권정보자료실
R1.15

인권운동사랑방



차 례

일러두기	합본 5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	/ 2
격려 글	희년을 보내며 · 강경선(빙송대 교수)	/ 3
머리 글	95년 인권상황 개관 · 인권운동사랑방	/ 6
부 록	<인권하루소식> 합본5호 색인	/ 271

제401호(95.5.12, 금) / 43

- 1면 ·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다음주 방한, 일본군 중군위안부 피해자 증인청취등 조사활동
· 경찰 대학구내 진입 '인혁당'추모비 철거, 영남대 · 경북대 항의시위
- 2면 · "가장 악명높은 투자가" 해외진출 한국기업 심각한 노동통제 현지 노동자와의 마찰 심각, 참여연대 토론회서 지적

제402호(95.5.13, 토) / 45

- 1면 · 북한 수감자 8백명 이상, 반국가행위자는 2백40명 국제앰네스티, 북한 방문 결과 발표
· 대구 재야단체 단식농성, 대구참사 축소수사 항의
·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분신, 노조행사 참가 정문에서 저지당하자 격분
- 2면 · 장기수 고 윤기남씨 묘지 광주시청 이장압력
· 천주교 제주교구 관계자 조작간첩 이장형씨 만나
· 시위통제선 철회요구 전국연합, 집회자유 침해
·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
· 특별보고관 방한 연기

제403호(95.5.16, 화) / 47

- 1면 · 희생하는 공안정국, 불어오는 공안한파 서울과 부산에서 24명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구속
· 울해협 노동자 텐트농성중 양봉수씨 분신사태 항의
· 철거테러 공동대응기로 고소·고발운동등 펼쳐
· 윤기남씨 묘 강제이장 광주시청, 가족동의 없이

- 2면 · 방치된 어린이 전화친구 부스러기선교회, 개통식
· 4천만원 손해소송 청구 사당의원, 경찰 난입 항의
· 배변호사 자격박탈 진정 한국여성의 전화
· 5.18 광주민중항쟁 15돌 기념행사일정

제404호(95.5.17, 수) / 49

- 1면 ·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성 부여 주민들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의지 표명
· 현대노동자 작업거부·항의농성 확산 현대·노동부, 불법파업 규정 강경입장
· 사람을 위한 발전 촉구, 전국연합 정책토론회
· 인권어록
- 2면 · 정부, 유엔 '사회권'심의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, 구체성 없는 증언부인으로 질문회피
· <유엔 어린이·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3> 부모·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

제405호(95.5.18, 목) / 51

- 1면 · 국제인권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재조명 인권협,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
· 김무용씨 양심수 선정, 무조건 석방촉구 국제앰네스티,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
· 「한국사회의 이해」 첫 재판
- 2면 · 오사카 APEC정상회의 때 일본, 국제NGO회의 개최
· 동티모르 어린이음반 호주 록그룹들
· 동티모르 순회강연계획 일본 동티모르지원그룹
· 한총련, 5.18책임자처벌 농성
· KNCC, 최규하씨 증언 촉구건의
· 부풀리기수사의 전형 부산대 「자주대오」사건
· 문화행사 참가 교사에 서울 교육청, 경위서 요구
· 동티모르 여성독립운동가 방한

제406호(95.5.19, 금) / 53

- 1면 · 순수 노조활동을 파업으로 내모는 정부와 한국통신 한국통신노조
· 분신 양씨 빼들리려
· 경찰, 대학강사 양효식씨 집에서 영장없이 연행 기도
· 이형기씨 대책없는 퇴원
- 2면 · 경찰, 학생조직사건 잇따라 발표 부산 10명, 고려대생 7명등
· 최규하씨 면담 거절, 여성계 대표들 결단 촉구

제407호(95.5.20, 토) / 55

- 1면 · 실종된 노동권, 대량구속 사태에고 김대통령, "한국통신노조 국가전복 저의 있다"
· 현총련 노동자 800여명 연행
· 장애인 단체들, 45개정책과제 제시
- 2면 · 경상대 교수들,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
· LG해고자 복직촉구집회 노조간부, 집회 후 구속
· <유엔 어린이·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4>-의견표명권 "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의견 표시 권리 있다"

제408호(95.5.23, 화)

/ 57

1면 · 경찰, 평화시위에 이성없는 폭력진압,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 요구 50여명 부상 130여명 강제연행

- 이 나라는 미군들의 무법천지?
- 한국통신노조에 경찰 투입 노조, 25일까지 단체행동 자제
- 군복무 성대생 4명 구속

2면 · 교수·공무원의 노조결성권·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 유엔 사회권위원회, 한국정부에 권고

제409호(95.5.24, 수)

/ 59

1면 · “나는 노동당 입당 한 적 없다” 박창희 교수, 안기부 고문으로 ‘허위자백’, 정정보도신청

- 하루가 멀다하고 미군범죄, 사회단체들 한미협정개정 목소리 드높아
- 경찰, 야당당사에 제집 드나들듯 해고자등 4명 연행

2면 · 유엔특별보고관 중군위안부 조사위해 최초 방한
· 병원적출물 소각장 반대 · ‘성희롱 국가에도 책임있다’,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
· <유엔 어린이·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5> “말하고 싶다, 알고 싶다, 전하고 싶다”

제410호(95.5.25, 목)

/ 61

1면 · 유엔 ‘사회권’ 권고안 즉각이행 촉구,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
· 재야단체 미군 성명 뻔뻔스럽다, 강한 반발

2면 · 민중의 미래를 재창조하기 위한 연대 PP21 3차대회 내년3월 스키랑카에서
· 미군폭행 당한 모녀 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
· 경찰 청소년단체 광주기행 막아
· 미군관련 사건에 관한 주한미군 대변인의 성명서 전문

3면 · <독자투고>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
· 반미불패 구속자들, 구속적부심서 ‘조작’주장
· ‘지방자치시대 장애인 복지정책’ 45대 과제 주요항목

제411호(95.5.26, 금)

/ 64

1면 · 영장제시 무시 불법적인 가택침입, 경찰 한국통신노조 수배자 검거에 불법 자행
· 정부 불법적인 탄압 일삼아 한통노조 준법투쟁

- 각계, 노동운동탄압 저지 위해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키로
- 노운협 의장등 구속

2면 ·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,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
· 「희망새」 사건 정정보도하라, 서울민사지법 조선일보에
· 재독교포 국보법 철폐촉구, '95 오월민중제 가져

제412호(95.5.27, 토)

/ 66

1면 · 유엔, 군위안부 실태 조사 일본군의 조직적 강간 확인
· 통합선거법 재검토 요구

- 미군범죄 규탄 확산, 여성단체 성희롱 미군 공정수사 촉구

2면 · 한국통신 ‘평화’로 가는길 징계·구속의 채찍 거둬야

· <유엔 어린이·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6>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: 아동학대

제413호(95.5.30, 화)

/ 68

1면 · 장릉 밑에 도청기? 출소 장기수 할머니 집에서 발견돼
· ‘경찰, 뼈에도 잇듣는다’ 구속학생공대위, 학생탄압 실상 폭로

- 한국통신 평화적 해결 촉구 각계 성명 잇따라

2면 · 광주책임자기소 촉구 부천시민 1980인 선언, 광주에서는 8월까지 캠페인 지속키로
· 삼청교육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

제414호(95.5.31, 수)

/ 70

1면 · 광주 5.18 헬기난사 목격자를 찾는다 광주정평위, 검찰 수사의지 없어 직접 찾기로
· 주한미군범죄 근절하라, 여성단체등 시위

- 공권력 투입 방침 강력비난, 전국연합 성명

2면 ·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금지는 위법,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
· 각계인사들 노동인권대책위 구성한다
· 1심판결 불복항소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
· 두밀리 다룬 다큐 시사회, 「서울영상집단」

제415호(95.6.1, 목)

/ 75

1면 · 외국인노동자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‘외국인노동자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’ 지적
·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

- 경찰 불허집회 허용키로, 2일 주한미군범죄규탄 집회

2,3면 · <인권하루소식> 95년 5월분 총목차(394-414호)

제416호(95.6.2, 금)

/ 78

1면 · “법도 모르는 정부”에 단호히 맞서기로, 노동인권대책위 출범
· 원광대는 「자주대오」, 전남대는 민사련 사건

2면 · 한국통신노조 교섭국장 박수호씨 인터뷰-한국통신노조 투쟁의 원천은 절대적인 조합원의 지지와 믿음

제417호(95.6.3, 토)

/ 80

1면 ·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 요구, 주한미군범죄운동본부 서울역서 서명운동 선포식
· 오늘은 ‘무주택자의 날’ 강제철거 중단 요구

- 수도권 교통특별법 필요 지하철거혁 시민토론회
- 김무용씨 집행유예

2면 · 광주시의원 오종렬의장 징역 3년10월선고
· 경찰폭행 항의 분신 이형기씨 1일 운명

· 유엔 어린이·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 마지막회-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: 난민,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
· 인권간행물

제418호(95.6.7, 수)

/ 82

- 1면 · 성희롱에 명든 백의의 천사, 태백시 장성병원 간호사들에 접대 술시중 강요
 - 바뀌지 않는 문민경찰 불법연행 후 면회도 안시켜
 - 구속노동자 단식 16일째
 - 무주택자 주거안정 촉구
 - 한미행정협정 토론의 장
- 2면 · 특별기고-‘준법’이 왜 ‘불법’인가(1) 박홍규 교수
 - 주간인권흐름

제419호(95.6.8, 목)

/ 84

- 1면 · 종교계마저 등 돌린 ‘문민’정부, 한국통신 사태에 시국기도회·법회등 천주교 불교등 강경대응 선언
 - 조정국씨 단식농성 연기
- 2면 · 특별기고-‘준법’이 왜 ‘불법’인가(2) 박홍규 교수
 - 살인미수 저지른 ‘문민’경찰 안국역 시위학생 연행 때

제420호(95.6.9, 금)

/ 86

- 1면 · 천주교 사제들, ‘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’ 8일부터 명동성당 농성 돌입 매일 시국미사가질 예정
 - 한통노조 지지 당부 민가협, 공권력 투입 비난
 - 삼미해고 노동자들 목숨 건 단식농성중
 - 조정국씨 단식농성 시작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
 - 최전대통령 증언 나서라, 5.18 국민위원회등 성명
- 2면 · 여전히 침해받는 교사들의 권리, 서울교육청 교육개혁선언 교사 증징계 방침
 - 피어선대 총학생회가 교수들 고소, 명예훼손등으로

제421호(95.6.10, 토)

/ 88

- 1면 · 노동인권대책위, 민간 최초로 대통령 탄핵운동 추진, 대통령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박탈
 - 장성병원 간호사 원직에 복직 성희롱 병원장, 노동부 직원 직위해제
 -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사망
- 2면 · 민주운동에 헌신한 2백41명 합동추모제 가져, 오늘 성균관대에서 중요공원까지 행진
 - 유해환경에서 작업도중 질식사, 안성 이성화학에서, 회사는 사인은폐하려
 - ‘사회주의혁명’조직 적발 경찰, 15명 구속 발표

제422호(95.6.13, 화)

/ 90

- 1면 · 대통령도 헌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노동인권대책위,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탄핵운동 전개
 - 불교계 1천80인 시국선언문 발표 천주교 김추기경 정부의 적극적 대책 요구
 - 한통노조 쟁의발생 신고 13일 단체교섭 가질 예정
- 2면 · ‘청소년의 대합창’ 문화행사 성황리에 열려 구로시민회, ‘내게로 열려진 세상의 빛을 찾아’ 주제로
 - 병원적출물 폐기장 해결 안되면 지자체 선거 거부 「포천병원적출물 폐기물 소각장 대책 위」 밝혀
 - 주간인권흐름

제423호(95.6.14, 수)

/ 92

- 1면 · 지자체출마 후보자도 대통령탄핵소추운동 동참, 95년 들어 노동자 57명 구속 81명 수배
 - 분신노동자 양봉수씨 사망 현중에 공권력 투입예상
 - 한통 노사 임금협상 재개
- 2면 · 천주교 2만여명 공권력 투입 항의미사 촛불시위도 가져
 - 전기협 의장 서선원씨에 징역 1년6월 선고
 - 인권교육 필요성 절감, AI 한국지부 워크샵
 - <현장스케치> 외로운 싸움을 독하게 견디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

제424호(95.6.15, 목)

/ 94

- 1면 · 오는 25일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
 - 광주 증언 미루면 역사의 죄인 5.18 국민위 최전대통령에게 등언 촉구 서한 전달
 - 미국인권단체도 방한 노동권등에 대해 조사
- 2면 · 양봉수씨 ‘노동자장’으로, 긴장 고조 민주노총 오는 17일 전국에서 추모집회 갖기로
 - 노동단체 실무자 고문당해,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서
 - 한통노조 북한 사주 받아, 박홍총장 또 망언
 - 학칙에 성희롱 방지 촉구, 서울대 총학생회 학교측에
 - 오늘 장기수 손배소송 선고

제425호(95.6.16, 금)

/ 96

- 1면 · 방패막이 민간기금안, 뒷줄에 선 일본정부 종군위안부 피해자들 납득못해
 - 정부 참회없이 용서할 수 없다, 6.6 교권유린 범불교도 시국법회
 - 경찰폭력 책임 처벌 촉구 민가협 목요집회에서
 - 고 양봉수씨 추모기도회
 - 사회안전법 소송 연기
- 2면 · 박홍, 근거없는 무책임 발언 이번엔 고발 당할 판
 - 자율교섭만이 지하철 움직인다, 지하철노조 파업 결정하자마자 정부 곧바로 직권중재
 - 현충련 본사 항의방문

제426호(95.6.17, 토)

/ 98

- 1면 · 5월부터 41일 동안 1백61명 구속 민가협 발표, 지자체 앞두고 구속자 급증
 - “끝없는 망언, 박총장님 물러나시오” 서강대총학생회 단식농성
 - 양봉수씨 유가족에 조건, 필리핀 급속노련
- 2면 · 최규하씨 증언 거부 입장 뒤풀이, 종교계도 서한 전달
 - 대통령탄핵 서명 대중화, 노동인권대책위
 - 위기모면하려는 교육책 이총리 담화에 재야 반박
 - 「법정평등 실현을 위한 모임」 회원 모집 한국여성의 전화

제427호(95.6.20, 화)

/ 100

- 1면 · 군사정권이 하던 시신탈취 뒤풀이, 경찰 폭력으로 고 양봉수씨 유골 탈취
 - 조작간첩 접전허용 촉구 천주교인권위, 법무장관 면담
 - 조작간첩 신귀영 15년만에 만기출소
- 2면 · 복지관에서 복지사 해고 광장복지관 내규위반으로
 - 박창희교수 구원회 결성

- 대구 양심수후원회 발족
- 불교인권위 인권법당 오늘 집들이 예불
- 주간인권흐름

제428호(95.6.21, 수)

/ 102

- 1면 · 조흥화학 염산가스 누출, 주민들 항의농성 회사는 무대책으로 일관
·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, 1천4백여명 서명받아
· 영산강에 유해뿌려, 고 양봉수씨 장례식
- 2면 · 노총, ILO 총회서 국익을 핑계삼은 거짓말 재야 노동계 강력 대응키로
· 언론 정정보도 청구 한동노조, 언론중재위에
· 박홍총장의 엇갈린 발언 강한 의구심 제기 · 현대자동차 고 양봉수씨 해고에서 장례까지

제429호(95.6.22, 목)

/ 104

- 1면 · 대우조선 노동자 분신사망 "사용자 각성" 유서남기고
· 서강대생 81%, "박홍발언 근거없다"
- 2면 · 국제인권소식-엠네스티 여성 권리신장 캠페인
· 전국의 사제들 단식농성 확대
· 엠네스티, 비인도적 대우 조사촉구
· 나주 농민의원 7월15일 개원

제430호(95.6.23, 금)

/ 106

- 1면 ·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룰 수 있나,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
· 굴욕적인 대일외교 비난, 정대협 위안부 문제에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촉구
· 대우조선 노조 잔업거부 노동계, 박씨분신 성명
· 양봉수씨 유골 탈취 비난 불교인권단체 성명
- 2면 · 정부 교육개혁안 비현실적인 말잔치, 교육개혁선언 서울교사 모임 토론회에서 지적
· 장기수 재판 선고 또 연기

제431호(95.6.24, 토)

/ 108

- 1면 · 정부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되풀이, 성남시에 철거깡패까지 동원 국내 최대 저유소 강행
·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내일 방한
- 2면 · "노조 간판 달고는 차마 할 수 없는 것" 민주노총, 한국노총 ILO 총회 유인물 배포 규탄
· 검찰 혐의사실 전면부인 「한국사회의 이해」 두번째 재판
· 민자당 반대 시위 구속 광주경찰, 전남대생 8명

제432호(95.6.28, 수)

/ 110

- 1면 · 유엔,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
· 대우노조 본사 텐트농성, 박삼훈씨 분신 대책 관련
- 2면 · 동성애자들 권리 선언 동성애자인권운동협회 결성
·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?
· 주간인권흐름

제433호(95.6.29, 목)

/ 112

- 1면 · 오늘 대우조선 고 박삼훈씨 장례 '전국노동자장'으로 거제도 대우조선에서
· 외국인노동자 단체 수련회 7월1일부터 2박3일간
· 조작간첩 조사 방일 천주교인권위원회
· 어제 박용길 장로 방북
- 2면 · 국제인권소식-홍콩 여성노동자도 86% 성희롱 경험
· 국제엠네스티 중국정부에 여성인권침해 근절 촉구
· 한동노조 간부 4명 연행
· 대노련연맹교섭대표단에 폭언·폭행 목포대학 교직원들

제434호(95.6.30, 금)

/ 114

- 1면 · 한국 '의사표현의 자유' 후진국, 인권단체 국보법과 '제3차 개입금지' 철폐 요구
· 고 박삼훈열사 장례식 열려, 대우조선 조합원 참석 방해하기도
· 목포대노조 결의대회
- 2,3면 · <자료>김중서(배재대 교수, 법학과)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-의사·표현의 자유: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

제435호(95.7.1, 토)

/ 119

- 1면 · 인간중심의 개발 확고히 자리잡아야 -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보고
·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씨 출국기자회견
- 2,3면 · <인권하루소식> 95년 6월분 총목차(415-434호)

제436호(95.7.4, 화)

/ 122

- 1면 · "부실시공 이제 그만" 시민·사회단체 삼풍관계자 엄중처벌 요구
· 어린이·청소년등 2-3일에 한명꼴로 자살, 94년 자살 1백48명, 가출 1만1천3백63건
- 2면 · 노동운동가 산재로 사망
· 현장스케치 이랜드그룹, '하느님의 이름으로' 노조탄압
· 주간인권흐름

제437호(95.7.5, 수)

/ 124

- 1면 · 직장내 여성차별·성폭력 법으로 막자, 여성·노동 9개 단체 국회청원
· 강기훈 공대위 항고
·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,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
· 인권어록
- 2면 · 제일한국인 정치범 석방 촉구, 일본국회의원 서명 청와대 등에 전달
· 불교인권위 7.4공동성명 발표, 23주년 국보법 철폐 요구
· 부산땅 히야리아 되찾기 시민대책위등 '민족통일해원상생곳' 가져
·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신귀영씨 인터뷰 "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야"

제438호(95.7.6, 목)

/ 126

- 1면 · 턱걸이에도 못미치는 최저임금, 올켜저임금 28만8천1백50원
· 한동노조 청구 언론중재 받아들여, 박홍총장 발언 정정보도
· 김상원 사건 재심선고 연기

- 황인성씨 재판 연기, 공안관련 증인 불출석
- 명동성당·조계사 공권력 투입 한 달, 성소난입 항의 행동 중단
- 2면 · 『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5』 남한편1 “김주석 사망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”

제439호(95.7.7, 금) / 128

- 1면 · 남아공 대통령 만델라 방한, 인권단체들 비판적 성명발표
- 삼풍백화점 희생자 추모집회
- '95 북경여성대회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
- 참여연대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
- 2면 · 『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5』 남한편2 “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 여전히 감옥에”

제440호(95.7.8, 토) / 130

- 1면 · “어린이 인권보고서 완성” 어린이 이익 최우선의 원칙 담아 21개 민간단체 참여, 연대회의 결실
- <해설>정부·민간보고서 어떻게 심의되나
- 아시아 발전 모델 재검토, 국제워크샵
- 2면 · 『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5』 북한편 “확인할 수 없는 수백명의 정치범”
- 인권간행물

제441호(95.7.11, 화) / 132

- 1면 ·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5.18불기소,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
- 제노사이드 조약
- 노동청년회원 군복무중 기무사에 연행
- 2면 ·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시아 워크샵,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 재검토
- 유엔 인권홍보책자 국내에서 무료 배포중
- 주간인권호름

제442호(95.7.12, 수) / 134

- 1면 · 7월은 산재재해 추방의 달, 노동·의료계 산재노동자 재활정책 촉구
- 5.18불기소 방침, 재야단체 저지 나서
- 인권어록
- 2면 · 동두천에서 조기덕씨, 미군에 매맞고도 치료비 없어 수술 못해
- 현대중공업 노조 올해 과로사 4명 밝혀
- 경기대 「자주대오」 구속자들 대부분 풀려나
- 노동청년회 용산기무사에서 조사중
- 산재추방의 달 주요행사 안내

제443호(95.7.13, 목) / 136

- 1면 · ‘화성연쇄살인사건’ 김종경씨 일부 승소, 경찰 불법체포·감금에 국가배상 판결, 고문은 인정안해
- 박창희 교수 1심 재판, 안기부·검찰에서 당한 고문 폭로
- 한국여성의 전화 격월간지 제호 공모

- 2면 · 민정연 회원 하룻새 7명 긴급구속
- 방위비 삭감 사회복지 예산 증액해야, 방위비 삭감 연대회의 건의서 보내기로
- 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교육 2박3일간 가져
- 한국통신노조 철야농성, 주말 지부별 집회
- 현대정공 노조 회사간부 고소고발

제444호(95.7.14, 금) / 138

- 1면 · 민가협, 목요집회서 양심수 건강실태 보고 “장기수 병마에 시달린다”
- 대전교도소 장기수들의 건강실태
- 현대정공 노조원들 회사의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 홍보
- 2면 · 기아기공 노조, 고공 취수탑 농성
- ACP, 박창희 교수 고문사례 지적
- 가톨릭노동사목 사무국장, 참고인 조사차 출두 보안수사대에 연행
- 삼풍붕괴사고 축소수사 비난

제445호(95.7.15, 토) / 140

- 1면 · 재야노동계 해고자 자율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,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
- 홍콩 인권자료센터 다가, 인권운동사랑방 방문 “아시아 지역의 정보는 아시아에서”
- 2면 · 광주 5월단체, 5.18책임자 기소 요구
- 민정연 7명 구속
- 서울지방변호사회, 행형실태 조사 발표 “교도소는 생활하기 상당히 곤란”
- 인권간행물

제446호(95.7.19, 수) / 142

- 1면 · 검찰 광주학살 책임자 모두에게 면죄부, 5월단체·재야 항의투쟁 계획
-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방한, 일본군위안부 실태조사
- 제1회 청소년 열린학교 입학식 가져
- 2면 · AI한국지부 전국교육대회 가져, 자국내 가이드라인변화 큰 관심
- <인터뷰> 나주 「농민치과의원」 한동금 원장 “농민건강의 모든 것, 책임질 터”
- 주간인권호름

제447호(95.7.20, 목) / 144

- 1면 · 5.18공대위 상경 명동성당 농성돌입
- 산재노동자 문제와 사회보장을 위한 공청회, 산재노동자에게 일터를
- 2면 ·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, 연계고용제 제심의 요구
- 북한서적출판사 사장 연행
- 안동·김천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
- 정대협 175차 수요시위, ‘아시아평화우호기금’ 철회 촉구
- 이랜드노조 사무장 지노위에서 복직판정

제448호(95.7.21, 금) / 146

- 1면 · ‘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’가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
- <현장스케치> 명동성당에서 텐트농성하는 5.18 희생자들

- 2면 · 한국여성의 전화,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논의
- 사회안전법손배소송 심리재개
- 최홍제씨 선고공판

제449호(95.7.22, 토)

/ 148

- 1면 · 주말규탄집회로 분위기 고조, 특별법·특별검사제 도입요구
-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강연회 모든형태의 여성차별 제거해야
- 민변, 전두환씨등 7명 국회위증 혐의 고발
- 2면 · <특별기고> 검찰의 5.18불기소 논거에대한 헌법적 비판, 5.18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(서경석 인하대 강사)

제450호(95.7.25, 화)

/ 150

- 1면 · 부산지법 '신귀영씨 일가 사건' 재심 결정,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
- 5.18국민위, 검찰불기소 취소에 맞서 헌법소원
- 2면 · 자료-5.18학살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, 헌법소원 청구취지서
- 5.18 학살자 기소촉구 도보행진, 망원동에서 청와대까지
- 참여연대, 검찰총장 직무유기 국회 탄핵소추해야
- 주간인권호름

제451호(95.7.26, 수)

/ 152

- 1면 ·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,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
- 5.18광주민중항쟁연합등5.18검찰 불기소 불복, 서울고검에 항고
- 인권어록
- 2면 · 참여연대등,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 청원
-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
- 일본 구원회, 이화춘씨 석방 촉구 집회
- 서울에서 한일 장애인국제대회 개최

제452호(95.7.27, 목)

/ 154

- 1면 · 사면복권 8.15 이후로 연기 가능성
- 부산신씨일가 간첩단 사건, 재심결정에 부산검찰 항고
- 8.15행사위, 평화협정 체결로 군축·분단 종식 주장
- 2면 ·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, 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발표 요지
- <해설> 특별검사제,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

제453호(95.7.28, 금)

/ 156

- 1면 · 아시아위치, 클린턴 대통령에게 '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할 것 요구'
- 사제단, 5.18불기소 경위 공개 재수사 요구
- 전국연합,한국·북한·미국 평화협정 체결해야
- 2면 · <자료> 박용상 부장 판사 관련 주요기사, 노동자·학생재판 원심보다 높게 선고
- 참여연대, 박용상 부장판사 해임운동펼칠터

제454호(95.7.29, 토)

/ 158

- 1면 · 5.18 불기소 김영삼정권 퇴진 주장, 2차 국민대회 명동성당까지 행진

- 인권협, 대표·간사단체 변경
- 민주노총, 청와대에 노동자 사면복권 촉구
- <현장스케치> '삭발식' 끝에 터져버린 5.18 유가족의 눈물
- 2,3면 · <인권하루소식> 95년 7월분 총목차

제455호(95.8.1, 화)

/ 165

- 1면 · 5.18광주불기소 항의 점차 확산, 교수들 집단성명 공대위 단식농성돌입
- 박용길 장로 안기부 즉각 연행 조사중
- 시민청 의장 절도혐의로 구속
- 2면 · <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①> "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"
- 주간인권호름

제456호(95.8.2, 수)

/ 167

- 1면 · 장기수 캠페인-<분단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①> 1. 기획을 시작하며-분단의 철창에 갇혀 세월마저 잊은 이들
- 경찰 원천봉쇄로 5.18 천막농성 연기
- 2면 · <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②> "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"
- <해설> 캐시미르는 어떤 곳인가?
- 교육개혁 선언 징계 전교조 비난 성명

제457호(95.8.3, 목)

/ 169

- 1면 · 각계 1995인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, 7일부터 일주일간 캠페인 펼쳐
- 강주영양 살해사건 항소심 고문인정 3명 무죄
- 여성시민단체 성희롱 항소심 규탄집회, 남성위주 편견 재확인
- 2면 · 장기수 캠페인-<분단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②> 2. 초장기수-20년 넘게 고문·전향공작으로 짓밟혀

제458호(95.8.4, 금)

/ 171

- 1면 · 5.18 불기소 항의 확산, 광주 전남지역 교수, 작가회의 성명
- 고려대 교수들 성명-5.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
- 전국연합, 장기수·양심수 석방 촉구
- 2면 · 장기수 캠페인-<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③> 3. 제일동포관련 사건-조국을 찾아온 댓가가 '간첩'

제459호(95.8.5, 토)

/ 173

- 1면 · 국제엠네스티, 긴급행동 돌입 박용길 장로 양심수 선정 은수미씨 건강악화 석방촉구
- 5.18공대위등 대검찰 재항고 기각에 대검찰청 항의방문
- 목동 철거민 생존권 쟁취결의대회
- 장의균씨 만기출소
- 2,3면 · 장기수 캠페인-<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> 4. 일본관련 사건-조작간첩의 황금어장
- 인권간행물

제460호(95.8.8, 화)

/ 176

- 1면 · 최장기수 김선명 석방 캠페인 시작, 전국4백65명 양심수 무기단식
- 현장스케치-명동성당 하루감옥 체험
- 주한미군 용산기지 인간띠잇기 대회
- 5.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국토종단대행진 가져
- 2면 · 국제엠네스티 총회, 자국내 활동원칙 변화 예상
- 주간인권흐름

제461호(95.8.9, 수)

/ 178

- 1면 ·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,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
- 유서사건공대위, 항고이유서보충서 제출
- 45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이틀째
- 5.18학살자 처벌주장, 한총련 단식 농성 돌입
- 2면 · 장기수 캠페인-〈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⑤〉 5. 남북어부 사건-오래전 남북이 간첩으로 둔
- 외대교수 1백6명, 5.18성명 확산
- 한국여성의 전화, 가정평화를 위한 노래 공모

제462호(95.8.10, 목)

/ 180

- 1면 · 시민 폭행치사 경찰에 집행유예, 김상원씨 사건 발생 9년만에 1심 판결
- 법무부·대전교도소, 김선명씨 면회 불허
- 박창희 교수 공소사실 부인
- 2면 · 장기수 캠페인-〈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〉 6. 행발불명되었던 가족-혈육의 정마저 간첩
- 김상원씨 사건 일지

제463호(95.8.11, 금)

/ 182

- 1면 · 민가협 목요집회 1백회, '양심수 없는 날' 그리며
- 부산지역 5백인, 국보법·양심수 석방 선언
- 8.15맞아 남북한 정부에 엠네스티 양심수 석방 촉구
- 2면 · 장기수 캠페인-〈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〉 7. 민주·통일운동 관련-순수한 열정에 가혹한
- 징역

제464호(95.8.12, 토)

/ 184

- 1면 · 8.15 50주년 대사면 김선명씨등 양심수 고작 25명 석방, 기득권층만 대폭 혜택 초장기수
- 24명등 양심수 4백40여명 남아
- 2면 · 장기수 캠페인-〈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⑧〉 8. 기획을 마치며-사상양심의 자유는 최소한
- 의 기본권
- 8.15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각계 반응

제465호(95.8.16, 수)

/ 186

- 1면 ·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씨 출소, 한국 아직도 세계 최장기수의 나라
- 2,3면 · 민교협 5.18 불기소 항의농성 중,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
- 엠네스티 한국지부, 한일인권세미나 개최

- 전남대, 목포대 등 교수들 5.18특별법 제정 움직임 확산
- 한국여성의 전화, 25기 여성상담원 교육
- 비전향장기수 3인 경력
- 5.3동의대 사건 윤창호씨 출소 소감

제466호(95.8.17, 목)

/ 189

- 1면 · 5.18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, 5.18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경찰 난입 기자 등 30여명
- 부상
- 5.18부상후 사망자 유족, 전두환·노태우씨 등 살인혐의로 고소
- 2면 · 장기수문제 해결 안돼, 8명 석방 불구 장기수 총65명 남아
-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, 제9기 장애우 대학 개최
- 5.18 유족의 목소리, 우리 아들을 두번씩이나 죽여

제467호(95.8.18, 금)

/ 191

- 1면 · 경찰 최루액 가스 살포, 대학생 30여 명 전신피부화상 고통
- 미국 의회 청문회 제출 보고서, 최루가스는 독가스가 잘못 표기된 것
- 성희롱 사건 우조교 대법원 상고
- 2면 · 5.18국민위 항의방문단, 서대문경찰서 불법감금
- 정대협, 일수상담화 비판, 법적 책임 요구
- 한통노조 간부 4명 집행유예선고
- 두밀리학교연대모임, 가족캠프 열어

제468호(95.8.19, 토)

/ 193

- 1면 · 방위비연대회의 방위비12.5% 증액 반대, 방위비 삭감 복지예산 증액 요구
- 영남대 의료원 농성자 2백94명 전원 연행
- 일본문화원 화염병 시위 관련 학생 6명 집행유예
- 2면 · 서대문경찰서, 5.18시위 진압 항의 7명, 불법구금 뒤 경범죄등으로 즉심 회부
- 박현채씨 19일 사회장
- 5.18 책임자 지소촉구대회 경찰 진압현장 목격기-‘마치 그곳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’
- 인권간행물

제469호(95.8.22, 화)

/ 195

- 1면 · 검찰, 삼청교육대 관련 고소·고발에 “공소권 없음” 결정
- 5.18농성단 새로운공동투쟁 제안
- 전국연합 경찰폭력 규탄
- 2면 · 한국중공업 파업사태, 회사측 사태해결에 찬물
- 주간인권흐름

제470호(95.8.23, 수)

/ 197

- 1면 · 진보언론 『말』 노조위원장 징계, 회사측 “월권행위는 징계대상”
- 성희롱 예방 교육 비디오 나와
- 2면 · NGO한국위원회 보고서①-여성과 사회개발
- 통계청 ‘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’ 삶의 질 어디까지 왔나?

제471호(95.8.24, 목)

/ 199

- 1면 ·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,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절실한 시설의 공개화
- 2면 · NGO한국위원회 보고서②-여성과 교육
 - 보건의료단체 5.18특별법 서명운동 벌여
 - 삼청진상규명투쟁위원회 진상규명 재차 요구
 - 한국여성의 전화, 성교육 강좌 열어

제472호(95.8.25, 금)

/ 201

- 1면 · 교수들사상 최대 집단행동, 5.18 특별법안등 국회청원
 - 서울시경 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10명 구속
 - 불교인권위원회, 복송 장기수 문제 논의차 남북불교도 논의 제안
 - 한중노조 쟁의타결
- 2면 · 자료-광주 만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(안)
 - 헌법파괴적 범죄등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(안)

제473호(95.8.26, 토)

/ 203

- 1면 · 대대적인 검거선봉 조짐, 서울시경 또 13명 연행 조사중
 - 5.18교수 서명,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, 불교계 5.18 책임자 기소 성명 발표
 - 경기도여자기술학원사건대책협의회, 매미춘여성복지대책 촉구
 - 국민고충처리위원회, 군 의문사 허원근씨 사건 재조사 촉구
- 2면 · NGO한국위원회 보고서③-여성과 폭력
 - 북경여성대회 NGO민간단체 어떤 활동을 하나
 - 기세문씨 집행유예 석방
 - LG그룹 해고자 2명 정식재판 도중 법정 구속
 - 대구노련 의장 3자 개입

제474호(95.8.29, 화)

/ 205

- 1면 · 성동경찰서 항의노점상 구속, 발가벗긴 채 고문
 - 레이니 주한미대사 반미감정 발언 사과 요구
 - 백산서당 직원 구속
- 2면 · NGO한국위원회 보고서④-장애여성
 - 주간인권호름

제475호(95.8.30, 수)

/ 207

- 1면 · 국내 최초 '인권교육' 필수과목으로, 성공회대 인권운동가로 강사진 꾸려
 - 성동경찰서 구속 노점상 박영생씨 진료 받아
 - 장애노점상추진위원회란?
- 2면 · 서울대 교수 2백21명 5.18 불기소 취소 서명
 - 한-일장애인국제교류대회, 한-일 장애인의 삶의 질 현저히 낮아
 - 서울시경 박상현씨등 10명 국보법으로 구속
 - 서준식씨 『자생의 정열』 출간

제476호(95.8.31, 목)

/ 209

- 1면 ·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
 - ARRC, 인권교육 워크숍 개최
- 2,3면 · <인권허루소식> 8월분(455호-476호) 목차

제477호(95.9.1, 금)

/ 215

- 1면 · 김선명씨 45년만에 어머니 만나
 - 전남교사 4백여명 5.18불기소 항의성명
 - 민주노총, 변형근로시간제 반대성명
- 2면 · 상지대 김찬국 총장 해임, 학생 교수 강력 반발
 - 상지대 사태배경

제478호(95.9.2, 토)

/ 217

- 1면 · 세추위 "민간단체 국제무대에서 국가이미지 손상시킨다"
 - 박용길장로 심장질환 정밀진단 절실
- 2면 · <자료>5.18 학살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남교사선언문
 - 한·일 장애인 공동선언문
 - 이랜드노조 토론회, 노동자 권리 인정해야

제479호(95.9.5, 화)

/ 219

- 1면 · 장애노점상 구속
 - 경찰폭행 규탄 집회, 생존권 보장요구
 - 대전철도노동자 서전근씨 분신사망
 - 신귀영씨 재심결정 항고 기각
 - 박창희 교수 재판, "서태수씨 간첩활동 안해" 증언
 - 연세대총학 '성정치' 공개강좌 마련
- 2면 · <인권피해자들의 추석1> 유가족-무덤하나 가슴에 안고

제480호(95.9.6, 수)

/ 221

- 1면 · 춘천고 최우주군 보충
 - 자율학습 헌법소원 포기
 - 분신한 서전근씨 분신이유도 모른 채 화장
- 2면 · <인권피해자들의 추석2> 농성 50일째 명동성당 5.18 농성자들
 - 광주연합 유귀숙씨 연행
 - 참여연대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항의서한 전달
 - 검찰 박용길 장로기소, 전국연합 비난성명

제481호(95.9.7, 화)

/ 223

- 1면 · 유엔인권위 실무분과 이장형씨등 11명 자의적 구금결정
- 2면 · <인권피해자들의 추석3> 철거민, 추석 생각할 겨를도 없어
 - 필리핀 산재산업연수생 반한시위 한국상품 불매운동벌여
 - 5.18 사회단체연석회의 구성
 - 인의협 박용길 장로 응급입원 요구
- 3,4면 · <창간 2주년 격려글 모음>-함께 걸어온 2년, 인권의 파수꾼에서 길잡이로

제482호(95.9.13; 수)

/ 227

- 1면 ·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 민간단체 공동대응, 주거문제 인식 전환 기회
- 세계주거권회의 개최배경
- 정대협등 여성단체 일본 민간기금 위안부조사 반대
- 경찰, 시위대에 실탄 발사
- 2면 · 민교협 5.18 불기소는 직무유기, 검찰총장등 탄핵소추 요구
- 전국연합 검찰총장 내정자 교체 논평

제483호(95.9.14, 목)

/ 229

- 1면 ·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"MBC 종합병원 장애인 생명경시" 사과요구
- MBC 종합병원 '생의 조건'편 줄거리 요약
- 미군범죄운동본부 주한미대사 미군범죄 발언 사과 요구
- 전국연합 경찰 실탄발사 항의성명
- 2면 · 엠네스티 국제대의원총회서 국내 인권침해 적극대응 결의
- 권종대 전 전국연합의장 투병중
- 여성의 전화 '법정평등실현모임' 발족

제484호(95.9.15, 금)

/ 231

- 1면 · 제3차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, UN인권이사회 손종규씨 사건 구제요구
- 상지대 공대위 발족, 총장문제 파장 커져
- 2면 · <손종규씨 사건자료>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
- 엠네스티 북한 황씨3형제 양심수 선정, 회원들에 긴급행동 요청

제485호(95.9.16, 토)

/ 233

- 1면 · 5.18 책임자 처벌 4차국민대회, 청원 잇따라 5.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가속화
- 여성단체연합 한달간 북한 수재민돕기 캠페인
- 2면 · <해설>손종규씨 사건 UN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
- 손종규씨 사건경과
- 제3차 개입금지조항에 의한 구속
- 수배자 현황
- 3면 · 5.18 불기소에 대한 각계 반응

제486호(95.9.19, 화)

/ 236

- 1면 · 포천 병원적출물소각장 사태 경찰 군의회 조사 중 난입 수배자 연행
- 병역특례 해고자 민주당사 농성 군문제해결 복직실현 요구
- 박용길장로 재수감
- 2면 · 5.18 특별법 제정 천주교 12만3천여명 서명 국회청원
- <자료>천주교인 5.18 특별법 제정 청원서

제487호(95.9.20, 수)

/ 238

- 1면 · 5.18 특별법 학생농성 시위가열 한총련 9월말 동맹휴업
- 암사동 철거현장 경찰 옷벗겨진 여성주민 그대로 연행
- 부산대 자주대오 수배자 2명 구속
- 2면 ·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"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유효"

- 포천병원적출물 소각장 사태위기 주민저지로 공사일단 연기
- 전국연합 박용길 장로 재수감 비난성명

제488호(95.9.21, 목)

/ 240

- 1면 · 5.18 불기소 항의 법국민적 투쟁발전 청년단체 농성, 의료인 가운시위등 적극행동
- 2면 · 암사동 철거현장 연행 여성주민 "강제로 옷벗겨 회롱했다" 주장
- 여성민우회·일본생활클럽 여성정치진출 다짐
-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민주노총계 정갑득씨 당선
- 민주노총 하반기 제3차개입금지 철폐 집중

제489호(95.9.22, 금)

/ 242

- 1면 · 5.18국민위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64명 특별법제정 촉구
- 지탁연등 민간단체 '5세 아동입학' 반대
- 박용길 장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
- 2면 · <통신원 특별기고> 5월정신의 예술적 승화-안티비엔날레

제490호(95.9.23, 토)

/ 244

- 1면 · 5.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.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
- 엠네스티, 국보법 개정요구 항의행동 요청
- 노인의 전화, 참여연대 노인복지법·생활보호법 개정 공청회
- 2면 · <인터뷰>엠네스티 패트릭 얼·프랭크 재니씨 - 엠네스티 캠페인의 전략과 방법

제491호(95.9.26, 화)

/ 246

- 1면 · 서울구치소 박장로에 비인도적 처우, 병사없고 심장병 환자 독방 수감
- 부산목회자·예장장로회 5.18 항의성명
- 유가협 10차총회 열사묘역 성역화등 결의
- 김용태·이승환씨 연행 국보법위반 혐의
- 2면 · 성폭력상담소 성희롱예방비디오 시사회, 직장상사 직장내 성희롱 주범
- 이랜드그룹, 뉴설악호텔 집단해고
- 민교협, 상지대 감사요청

제492호(95.9.27, 수)

/ 248

- 1면 · 재야노동연구소에 독일제 고성능 도청기 발견
- 장애인전용복지공장은 분리고용정책-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 고용 문제점
- 내곡동 안기부 구속1호 89년 전대협 정책위원장
- 2면 · <자료>정부 농민감시·탄압 사례 - 농민탄압 공무원에 무더기 표창
- 불교인권위 장기수 복송 판문점 회담 제안
- 외국인노동자문제 입법청원 추진

제493호(95.9.28, 목)

/ 250

- 1면 · 현중 노조위원장 징계위 회부, 노사대립 재연 조짐
- 5.18 항의시위 주말 최대예상 국민대회 서명운동 계속
- 성폭행피해자 피고석에, 봉천동 전철순씨 재판
- 병역특례해고자 국방부 항의방문

- 2면 · <지상중계> 성공회대 주최 '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' 세미나 - 고령화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절실
· 고난모임, 보안관철법 폐지 기도회

제494호(95.9.29, 금) / 252

- 1면 · 서울교사 1천7백여명 5.18특별법 제정 촉구, 한총련 총궐기 30만명 서명돌입
· 노운협 노동단체 감시·사찰중단 요구
2면 · Human Rights Watch 리처드 디커-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
· 예술인 80여 명 박용길 장로 석방촉구

제495호(95.9.30, 토) / 254

- 1면 · 5세아 취학반대, 유치원 공교육화를-오늘, 인천교사모임 공청회
· 전국 5.18 시위 격화, 오늘 제5차 국민대회
· 앰네스티, 출판인 석방요구
· 의사표현의 자유 국제회의, 조용환변호사 출국
2,3면 · <인권하루소식> 95년 9월분 총목차(477-495호)

제496호(95.10.4, 수) / 259

- 1면 · 핵발전소 생존권 위협, 전남 영광 주민들 핵발전소 추방결의
· 10월 5.18 파고 더 거세진다, 내년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
· 한국여성의 전화등, 가정폭력방지 바자회·성희롱시민연대 결성 "잘못된 성문화 바로잡자"
2면 · <자료>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험, 서울지법 판결문 요약
· 주간인권호름

제497호(95.10.5, 목) / 261

- 1면 · 번3동 철거현장, 종암서 경찰 대학생에 총기난사
· 여성단체 고용평등의 달 다양한 행사, 여성평생평등고용 확보 목표
· 박용길 장로 첫 재판 거부, "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어"
2면 · ARRC 태국에서 인권교육가 워크샵 진행, 참여자 중심의 인권교육 공동훈련
· 아디다스 인권교육 방법이란

제498호(95.10.6, 금) / 263

- 1면 · 외국인노동자 88명 산재보상 청구, '귀향모임' 1년여동안 피해 사례수집 결실
· 박장로 석방대책위 농성·전교조 충남지부, 자민련에 항의서한
2면 · <자료>대한변협 서명운동 취지문-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바라며
· 상명여대 교수 5.18 특별법 성명

제499호(95.10.7, 토) / 265

- 1면 · 한국NGO위원회 북경세계여성회의 보고회, "여성의 평등실현 전략 마련"
· 할당제 여성연대, 2천년까지 여성고용 30% 실현요구
2면 · <현장스케치>80일 맞은 5월단체 명동성당 농성장-특별법 제정때까지 무기한 농성
· 인권간행물
3면 · <자료>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

- 제일교포 이성우씨 석방
· 전국연합, 5.18 국회위증수사 촉구
· 전해투, 국방부앞 시위

제500호(95.10.10, 화) / 268

- 1면 · 세계주거권회의민간위원회 결성, 인간중심의 도시화와 주거권 확립 노력
· 미군견 주민물어, 미군처벌 성명 잇따라
· 5.18서명교수모임, 박교육부장관 발인 항의
2면 · 천주교인권위, 총회서 신자 대상 인권교육 결의
· 앰네스티 박용길 장로 석방 요구서철연 창립기념대회, 생존권 위협 단호대처
· 전철연, 5.18 투쟁천명
· 주간인권호름

헌법 1950년

국립헌법연구원

대한민국 헌법 제401호부터 제500호까지의 법률을 수록한 책이다. 이 책은 헌법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당시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담고 있다. 이 책은 헌법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.

이 책은 헌법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당시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담고 있다. 이 책은 헌법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.

이 책은 헌법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당시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담고 있다. 이 책은 헌법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.

이 책은 헌법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당시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담고 있다. 이 책은 헌법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.

이 책은 헌법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당시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담고 있다. 이 책은 헌법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.

이 책은 헌법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당시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담고 있다. 이 책은 헌법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.

인권하루소식

합본 V 색인

(제401호 - 제500호)

부록:『<인권하루소식> 합본 5호』 색인

<편집자주>

<인권하루소식> 합본 V호(401-500호)를 펴내면서 게재되었던 기사를 주제별로 색인작업을 하였습니다. 아래 순서에 따라 색인작업이 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(가나다순).

<색인순서>

- 274 /경찰폭력, 안기부 - <김상원씨 사건> <총기난사> <철거폭력> <이형기씨 사건>
- 275 /고문, 가혹수사 - <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> <강주영양 사건> <박창희교수> -> <국가보안법>
- 276 /교육 - <상지대 사건> <두밀리분교> <전교조>
- 276 /국가보안법 - <장기수캠페인> -> 양심수, 장기수 <의사표현의 자유> -> 국제 <박창희교수> <박용길장로 방북사건> <한국사회의 이해> <학생조직사건-부산대 자주대오, 고려대 반미불패, 경기대 자주대오> <노동청년회> <민정련사건> <남한조선노동당> <희망새 사건>
- 279 /국제 - <북경여성대회> -> 여성 <정신대문제> -> 여성 <제3자개입금지> -> 노동 <의사표현의 자유> <유엔> <엠네스티> <ILO> <케시미르>
- 281 /노동 - <노동운동단체협의회> <철도파업, 전기협> <이랜드> <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> <장성병원> <전혜투(민주노동총전혜특위)> <병역특례해고노동자> <외국인노동자> <한국통신> <현대자동차 양봉수씨 사건> <대우조선 박삼훈씨 사건> <민주노동> <손종규 사건> -> 국제 <산업재해> <대전철도 서전근씨 사건> <제3자개입금지>
- 286 /노인
- 286 /도시빈민 - <노점상> <세계주거권회의> <철거민>
- 287 /미군범죄 - <설은주씨등 세모녀 폭행사건> <주한미군군절운동본부> <충무로 폭행사건>
- 288 /법제
- 288 /북한인권
- 288 /불처벌 - <5·18> <정신대> -> 여성 <삼청교육대>
- 291 /사회보장권- <대형참사> <포천병원적축물 소각장 반대운동>
- 292 /사회단체 - <민교협> <전국연합> <참여연대>
- 293 /아동 - <어린이청소년권리연대회의>
- 294 /양심수, 장기수 - <사회안전법> <조작간첩사건> <장기수캠페인> <양심수캠페인> <8.15사면> <조작간첩 신귀영씨 사건>
- 296 /여성 - <여성민우회> <여성의 전화> <북경여성대회> <성폭력상담소> <성폭력, 성희롱> <정신대> <지택연>
- 298 /인권교육
- 298 /인권단체 - <고난모임> <불교인권위원회> <민가협> <엠네스티 한국지부> <천주교 인권위> <민변> <주한미군범죄군절운동본부> -> 미군범죄 <유가협> <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> -> 장애인 <인권협> <KNCC인권위> <인권운동사랑방>
- 300 /행형
- 301 /일반
- 301 /장애인 - <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>
- 302 /기타 - <주간인권호름> <월 총목차>

<범례>

- 한총련, 5.18책임자처벌 농성/95.5.18 2 405/ 52
; (95년 5월18일자-405호- 기사, 2면, 『<인권하루소식> 합본 V』의 52쪽)
- 삼미해고 노동자들 목숨 건 단식농성중/95.6.9 1 420/ 86
; (95년 6월9일자-420호- 기사, 1면, 『<인권하루소식> 합본 V』의 86쪽)

1. 경찰폭력, 안기부

- 경찰 대학구내 진입 '인혁당'추모비 철거, 영남대·경북대 항의시위/95.5.12 1 401/ 43
- 4천만원 손배소송 청구 사당의원, 경찰 난입 항의/95.5.16 2 403/ 48
- 경찰, 평화시위에 이성없는 폭력진압, 굴업도 핵폐기장 철회 요구·50여명 부상 130여명 강제연행/95.5.23 1 408/ 57
- 경찰, 야당당사에 제집 드나들듯 해고자등 4명 연행/95.5.24 1 409/ 59
- 경찰 청소년단체 광주기행 막아/95.5.25 2 410/ 62
- 영장제시 무시·불법적인 가택침입, 경찰, 한국통신노조 수배자 검거에 불법 자행/95.5.26 1 411/ 64
- '경찰, 뽀뽀도 잊는다' 구속학생공대위, 학생탄압 실상 폭로/95.5.30 1 413/ 68
-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금지 위법 서울고법,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/95.5.31 2 414/ 71
- 경찰, 청년학생3자개입 실천 대행진 출정식 참가자 불법연행 후 면회도 안시켜/95.6.7 1 418/ 82
- 살인미수 저지른 '문민'경찰 안국역 시위학생 연행 때/95.6.8 2 419/ 85
- 경찰폭력 책임 처벌 촉구, 민가협 목요집회/95.6.16 1 425/ 96
- 5.18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, 5.18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, 합법집회 경찰 난입 기자 등 30여명 부상/95.8.17 1 466/ 189
- 미국 의회 청문회 제출 보고서, 최루가스는 독가스가 잘못 표기된 것/95.8.18 1 467/ 191
- 경찰 최루액 가스 살포, 대학생 30여 명 전신피부화상 고통/95.8.18 1 467/ 191
- 5.18국민위 항의방문단, 서대문경찰서 불법감금/95.8.18 2 467/ 191
- 5.18 책임자 기소촉구대회 경찰 진압현장 목격기-'마치 그곳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'/95.8.19 2 468/ 194
- 서대문경찰서, 5.18시위 진압 항의 7명, 불법구금 뒤 경범죄등으로 즉심 회부/95.8.19 2 468/ 194
- 전국연합, 5.18집회 경찰폭력 규탄/95.8.22 1 469/ 195
- 성동경찰서 구속 노점상 박영생씨 진료 받아/95.8.30 1 475/ 207
- 포천 병원적출물소각장 사태 경찰 군의회 조사 중 난입 수배자 연행/95.9.19 1 486/

236

- 재야노동연구소에 독일제 고성능 도청기 발견/95.9.27 1 492/ 248
- 내곡동 안기부 구속1호 89년 전대협 정책위원장/95.9.27 1 492/ 248

<김상원씨 사건>

- 시민 폭행치사 경찰 10년 구형 김상원 사건 재정신청/95.6.1 1 415/ 75
- 김상원 사건 제심선고 연기/95.7.7 1 438/ 128
- 시민 폭행치사 경찰에 집행유예, 김상원씨 사건 발생 9년만에 1심 판결/95.8.10 1 462/ 180
- 김상원씨 사건 일지/95.8.10 2 462/ 181

<총기난사>

- 경찰, 시위대에 실탄 발사/95.9.13 1 482/ 227
- 전국연합 경찰 실탄발사 항의성명/95.9.14 1 483/ 229
- 번3동 철거현장, 종암서 경찰 대학생에 총기난사/95.10.5 1 497/ 261

<철거폭력>

- 암사동 철거현장 경찰 옷벗겨진 여성주민 그대로 연행/95.9.20 1 487/ 238
- 암사동 철거현장 연행 여성주민 "강제로 옷벗겨 희롱했다" 주장/95.9.21 2 488/ 240

<이형기씨 사건>

- 이형기씨 대책없는 퇴원/95.5.19 1 406/ 53
- 경찰폭행 항의 분신 이형기씨 1일 운명/95.6.3 2 417/ 81

2. 고문

- 광주 가톨릭노동사목 실무자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서 고문당해/95.6.15 2 424/ 95
-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기사,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/95.6.23 1 430/ 106
- '화성연쇄살인사건' 김종경씨 일부 승소, 경찰 불법체포·감금에 국가배상 판결, 고문은 인정안해/95.7.13 1 443/ 136
- 장기수 캠페인-〈분단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②〉 2. 초장기수-20년 넘게 고문·전향공작으로 짓밟혀/95.8.3 2 457/ 170
- 성동경찰서 항의노점상 구속, 발가벗긴 채 고문/95.8.29 1 474/ 205

<문국진 모임>

- 1심판결 불복항소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/95.5.31 2 414/ 71

<강주영양 사건>

- 강주영양 살해사건 항소심 고문인정 3명 무죄/95.8.3 1 457/ 169

<박창희교수> -> <국가보안법>

3. 교육

- 교수·공무원의 노조결성권·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,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 국정부에 권고/95.5.23 2 408/ 58
- 피어선대 총학생회가 교수들 고소, 명예훼손등으로/95.6.9 2 420/ 87
- 정부 교육개혁안 비현실적인 말잔치, 교육개혁선언 서울교사 모임 토론회에서 지적 /95.6.23 2 430/ 107
- 춘천고 최우주군 보충·자율학습 헌법소원 포기/95.9.6 1 480/ 221

<상지대>

- 상지대 김찬국 총장 해임, 학생 교수 강력 반발/95.9.1 2 477/ 216
- 상지대 사태배경/95.9.1 2 477/ 216
- 상지대 공대위 발족, 총장문제 파장 커져/95.9.15 1 484/ 231
- 민교협, 상지대 감사요청/95.9.26 2 491/ 247

<두밀리>

-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성 부여 주민들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의지 표명 /95.5.17 1 404/ 49
- 두밀리 다룬 다큐 시사회, 「서울영상집단」/95.5.31 2 414/ 72
- 두밀리학교연대모임, 가족캠프 열어/95.8.18 2 467/ 192

<전교조>

- 문화행사 참가 교사에 서울 교육청, 경위서 요구/95.5.18 2 405/ 52
- 여전히 침해받는 교사들의 권리 서울교육청, 교육개혁선언 교사 증징계 방침/95.6.9 2 420/ 87
- 교육개혁 선언 징계 전교조 비난 성명/95.8.2 2 456/ 168
- 전교조 충남지부, 자민련에 항의서한/95.10.6 1 498/ 263

4. 국가보안법

- 경찰, IS 관련 양효식씨 영장없이 연행 기도/95.5.19 1 406/ 53
- 군복무 성대생 4명 민민학련 관련 구속/95.5.23 1 408/ 57
- 계독교포 국보법 철폐촉구, '95 오월민중제 가져/95.5.26 2 411/ 65
- 김무용씨 집행유예/95.6.3 1 417/ 80

- 광주시의원 오종렬의장 징역 3년10월선고/95.6.3 2 417/ 81
-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가톨릭노동자의 집 김용진씨 고문/95.6.15 2 424/ 95
- 황인성씨 재판 연기, 공안관련 증인 불출석/95.7.6 1 437/ 126
- 「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5」 남한편1 “김주석 사망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”/95.7.6 2 438/ 127
- 가톨릭노동사목 사무국장, 참고인 조사차 출두 보안수사대에 연행/95.7.14 2 444/ 139
- 「한」출판사 북한서적출판 사장등 4명 연행/95.7.20 2 447/ 145
- 안동·김천교도소 양심수 국가보안법 철폐요구 단식농성/95.7.20 2 447/ 145
- 「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」가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/95.7.21 1 448/ 146
- 부산지역 5백인, 국보법·양심수 석방 선언/95.8.11 1 463/ 182
- 광주연합 유괴숙씨 연행/95.9.6 2 480/ 222
- 유엔인권위 실무분과 이장형씨등 11명 자의적 구금결정/95.9.7 1 481/ 223
- 엠네스티, 국보법 개정요구 항의행동 요청/95.9.23 1 490/ 244
- 김용태·이승환씨 연행 국보법위반 혐의/95.9.26 1 491/ 246

<장기수캠페인> -> <양심수, 장기수>

<의사표현의 자유> -> <국제>

<박창희교수>

- “나는 노동당 입당한 적 없다” 박창희 교수, 안기부 고문으로 ‘허위자백’, 정정보도신청/95.5.24 1 409/ 59
- 박창희교수 구원회 결성/95.6.20 2 427/ 101
- 박창희 교수 1심 재판, 안기부·검찰에서 당한 고문 폭로/95.7.13 1 443/ 136
- ACPP, 박창희 교수 고문사태 지적/95.7.14 2 444/ 139
- 박창희 교수 공소사실 부인/95.8.10 1 462/ 180
- 박창희 교수 재판, “서대수씨 간첩활동 안해” 증언/95.9.5 1 479/ 219

<박용길장로 방북사건>

- 어제 박용길 장로 방북/95.6.29 1 433/ 112
- 박용길 장로 안기부 즉각 연행 조사중/95.8.1 1 455/ 165
- 국제엠네스티, 긴급행동 돌입 박용길 장로 양심수 선정 은수미씨 건강악화 석방촉구 /95.8.5 1 459/ 173
- 박용길장로 심장질환 정밀진단 절실/95.9.2 1 478/ 217
- 검찰 박용길 장로기소, 전국연합 비난성명/95.9.6 2 480/ 222
- 인의협 박용길 장로 응급입원 요구/95.9.7 2 481/ 224
- 박용길장로 채수감/95.9.19 1 486/ 236
- 전국연합 박용길 장로 채수감 비난성명/95.9.20 2 487/ 239
- 박용길 장로 서울구치소에 채수감/95.9.22 1 489/ 242
- 예술인 80여 명 박용길 장로 석방촉구/95.9.28 2 493/ 251

- 박용길 장로 첫재판 거부, “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어”/95.10.5 1 497/ 261
- 박장로 석방대책위 농성/95.10.6 1 498/ 263
- 엠네스티 박용길 장로 석방 요구/95.10.10 2 500/ 269

<한국사회의 이해>

- 「한국사회의 이해」 첫 재판/95.5.18 1 405/ 51
- 경상대 교수들, 국보법 7조 위헌심판 청구/95.5.20 2 407/ 56
- 「한국사회의 이해」 두번째, 재판검찰 협의사실 전면부인/95.6.24 1 431/ 108

<학생조직사건-부산대 자주대오, 고려대 반미불패, 경기대 자주대오>

- 희생하는 공안정국, 불어오는 공안한파 서울과 부산에서 24명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 구속/95.5.16 1 403/ 47
- 부풀리기 수사의 전형 부산대 「자주대오」사건/95.5.18 2 405/ 52
- 경찰, 학생조직사건 잇따라 발표 부산 10명, 고려대생 7명등/95.5.19 2 406/ 54
- 「반미불패」 구속자들, 구속적부심서 ‘조작’주장/95.5.25 3 410/ 63
- 원광대는 「자주대오」, 전남대는 「민사련」 사건/95.6.2 1 416/ 78
- 「사회주의혁명」조직 적발 경찰, 15명 구속 발표/95.6.10 2 421/ 89
- 경기대 「자주대오」 구속자들 대부분 풀려나/95.7.12 2 442/ 135
- 「반미불패 산악회」 최홍재씨 선고공판/95.7.21 2 448/ 147
- 부산대 「자주대오」 수배자 2명 구속/95.9.20 1 487/ 238

<노동청년회>

- 노동청년회원 군복무중 기무사에 연행/95.7.11 1 441/ 132
- 노동청년회원 용산기무사에서 조사중/95.7.12 2 442/ 135

<민정연>

- 민정연 회원 하룻새 7명 긴급구속/95.7.13 2 443/ 137
- 민정연 7명 구속/95.7.15 2 445/ 141

<남한조선노동당>

- 서울시경 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10명 구속/95.8.25 1 472/ 201
- 대대적인 검거선봉 조짐, 서울시경 또 13명 연행 조사중/95.8.26 1 473/ 203
- 기세문씨 집행유예 석방/95.8.26 2 473/ 204
- 백산서당 직원 정순구씨 구속/95.8.29 1 474/ 205
- 서울시경 박상현씨등 10명 국보법으로 구속/95.8.30 2 475/ 208

<희망새>

- 「희망새」 사건 정정보도하라, 서울민사지법 조선일보에/95.5.26 2 411/ 65

5. 국제

- 오사카 APEC정상회의 때 일본, 국제NGO회의 개최/95.5.18 2 405/ 52
- 민중의 미래를 재창조하기 위한 연대 PP21 3차대회 내년3월 스리랑카에서/95.5.25 2 410/ 62
- 미국인권단체 방한, 노동권등에 대해 조사/95.6.15 1 424/ 94
- 양봉수씨 유가족에 조건, 필리핀 금속노련/95.6.17 1 426/ 98
- 홍콩 여성노동자 86% 성희롱 경험/95.6.29 2 433/ 113
- 제일한국인 정치범 석방 촉구, 일본국회의원 서명 청와대 등에 전달/95.7.5 2 437/ 125
-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시아 워크샵,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 재검토/95.7.11 2 441/ 133
- ACPP, 박창희 교수 고문사례 지적/95.7.14 2 444/ 139
- 홍콩 인권자료센터 다가, 인권운동사랑방 방문 “아시아 지역의 정보는 아시아에서”/95.7.15 1 445/ 140
- 아시아워치, 클린턴 대통령에게 ‘김대통령에게 한국인권 개선 촉구할 것 요구’/95.7.28 1 453/ 156
-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,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/95.8.9 1 461/ 178
- ARRC, 인권교육 워크샵 개최/95.8.31 1 476/ 209
- 세추위 “민간단체 국제무대에서 국가이미지 손상시킨다”/95.9.2 1 478/ 217
- 필리핀 산재산업연수생 반한시위 한국상품 불매운동벌어/95.9.7 2 481/ 224
- Human Rights Watch 리처드 디커-OECD가입 노동악법 개정하는 기회로 삼아야/95.9.29 2 493/ 253
- ARRC 태국에서 인권교육가 워크샵 진행, 참여자 중심의 인권교육 공동훈련/95.10.5 2 497/ 262

<북경여성대회> -> <여성>

<정신대> -> <여성>

<제3자개입금지> -> <노동>

<의사표현의 자유>

- 국제인권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제조명 인권협,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/95.5.18 1 405/ 51
- 김무용씨 양심수 선정, 무조건 석방촉구 국제엠네스티,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/95.5.18 1 405/ 51
- 오는 25일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/95.6.15 1 424/ 94
-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내일 방한/95.6.24 1 431/ 108
- 유엔,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/95.6.28 1 432/ 110

-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?/95.6.28 2 432/ 111
- 한국 '의사표현의 자유' 후진국, 인권단체 국보법과 '제3자 개입금지' 철폐 요구/95.6.30 1 434/ 114
- <자료>김중서(배재대 교수, 법학과)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-의사·표현의 자유: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/95.6.30 2.3 434/ 115
-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싸인씨 출국기자회견(95.7.1 1 435/ 119

<유엔>

- 정부 유엔 '사회권'심의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, 구체성 없는 증언부언으로 질문회피/95.5.17 2 404/ 50
- 교수·공무원의 노조결성권·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,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/95.5.23 2 408/ 58
- 유엔 '사회권' 권고안 즉각이행 촉구,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/95.5.25 1 410/ 61
- 삼청교육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/95.5.30 2 413/ 69
- 유엔 인권홍보책자 국내에서 무료 배포중/95.7.11 2 441/ 133
- '국가보안법 피해자대회'가져 국가보안법 유엔에 집단 제소 결의/95.7.21 1 448/ 146
- 유엔인권위 실무분과 이장형씨등 11명 자의적 구금결/95.9.7 1 481/ 223

<엠네스티>

- 국제엠네스티, 김무용씨 양심수 선정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야/95.5.18 1 405/ 51
- 엠네스티, 비인도적 대우 조사 촉구/95.6.22 2 429/ 105
- 엠네스티 여성 권리신장 캠페인/95.6.22 2 429/ 105
- 국제엠네스티 중국정부에 여성인권침해 근절 촉구/95.6.29 2 433/ 113
- 『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5』 남한편1 "김주석 사망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"/95.7.6 2 438/ 127
- 『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5』 남한편2 "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 여전히 감옥에"/95.7.7 2 439/ 129
- 『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5』 북한편 "확인할 수 없는 수백명의 정치범"/95.7.8 2 440/ 131
- 국제엠네스티, 긴급행동 돌입 박용길 장로 양심수 선정 은수미씨 건강악화 석방촉구/95.8.5 1 459/ 173
- 국제엠네스티 총회, 자국내 활동원칙 변화 예상/95.8.8 2 460/ 177
- 8.15맞아 남북한 정부에 엠네스티 양심수 석방 촉구/95.8.11 1 463/ 182
- 엠네스티 국제대의원총회서 국내 인권침해 적극대응 결의/95.9.14 2 483/ 230
- 엠네스티 북한 황씨3형제 양심수 선정, 회원들에 긴급행동 요청/95.9.15 2 484/ 232
- 엠네스티, 국보법 개정요구 항의행동 요청/95.9.23 1 490/ 244
- <인터뷰>엠네스티 페트릭 일·프랭크 제니씨 - 엠네스티 캠페인의 전략과 방법

/95.9.23 2 490/ 245

- 엠네스티, 출판인 석방요구/95.9.30 1 494/ 254
- 엠네스티 박용길 장로 석방 요구/95.10.10 2 500/ 269

<ILO>

- 재야 노동계, 노총 ILO 총회서 국익을 핑계삼은 거짓말 강력 대응키로/95.6.21 2 428/ 103
- "노조 간판 달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짓" 민주노총, 한국노총 ILO 총회 유인물 배포 규탄/95.6.24 2 431/ 109

<동티모르>

- 동티모르 여성독립운동가 방한/95.5.18 2 405/ 52
- 동티모르 어린이음반 호주 록그룹들(/5.5.18 2 405)/ 52
- 동티모르 순회강연계획 일본 동티모르지원그룹/95.5.18 2 405/ 52

<캐시미르>

- <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①> "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"/95.8.1 2 455/ 166
- <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②> "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/95.8.2 2 456/ 168
- <해설> 캐시미르는 어떤 곳인가?/95.8.2 2 456/ 168

6. 노동

- "가장 악명높은 투자가" 해외진출 한국기업 심각한 노동통제 현지 노동자와의 마찰 심각, 참여연대 토론회서 지적/95.5.12 2 401/ 44
- 교수·공무원의 노조결성권·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 유엔 사회권위원회, 한국정부에 권고/95.5.23 2 408/ 58
- 유엔 '사회권' 권고안 즉각이행 촉구,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/95.5.25 1 410/ 61
- 지자제출마 후보자도 대통령탄핵소추운동 동참, 95년 들어 노동자 57명 구속 81명 수배/95.6.14 1 423/ 92
- 미국인권단체도 방한 노동권등에 대해 조사/95.6.15 1 424/ 94
- 노총, ILO 총회서 국익을 핑계삼은 거짓말 재야 노동계 강력 대응키로/95.6.21 2 428/ 103
- 대노련연맹 교섭대표단에 폭언·폭행 목포대학 교직원들/95.6.29 2 433/ 113
- 목포대노조 결의대회/95.6.30 1 434/ 114
- 턱걸이에도 못미치는 최저임금, 올최저임금 28만8천1백50원/95.7.6 1 438/ 126
- 참여연대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/95.7.7 1 439/ 128

- 아시아 발전 모델 재검토, 국제워크샵/95.7.8 1 440/ 130
- 기아기공 노조, 고공 취수탑 농성/95.7.14 2 444/ 139
- 영남대 의료원 농성자 2백94명 전원 연행/95.8.19 1 468/ 193
- 한국중공업 파업사태, 회사측 사태해결에 찬물/95.8.22 2 469/ 196
- 진보언론 『말』 노조위원장 징계, 회사측 “월권행위는 징계대상”/95.8.23 1 470/ 197
- 한중노조 쟁의타결/95.8.25 1 472/ 201
- 대구노련 의장 3자 개입/95.8.26 2 473/ 204

<노동운동단체협의회>

- 노우협 의장등 구속/95.5.26 1 411/ 64
- 노우협 노동단체 감시·사찰중단 요구/95.9.29 1 494/ 252

<철도파업, 전기협>

- 전기협 의장 서선원씨에 징역 1년6월 선고/95.6.14 2 423/ 93
- 자율교섭만이 지하철 움직인다, 지하철노조 파업 결정하자 곧바로 직권중재/95.6.16 2 425/ 97

<이랜드>

- <현장스캐치> 이랜드그룹, ‘하느님의 이름으로’ 노조탄압/95.7.4 2 436/ 123
- 이랜드노조 사무장 지노위에서 복직판정/95.7.20 2 447/ 145
- 이랜드노조 토론회, 노동자 권리 인정해야/95.9.2 2 478/ 218
- 이랜드그룹, 뉴설악호텔 집단해고/95.9.26 2 491/ 247

<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>

- 현총련 노동자 800여명 연행/95.5.20 1 407/ 55
- 현총련 본사 항의방문/95.6.16 2 425/ 97
- 현대중공업 노조 올해 과로사 4명 밝혀/95.7.12 2 442/ 135
- 현대정공 노조 회사간부 고소고발/95.7.13 2 443/ 137
- 현대정공 노조원들 회사의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 홍보/95.7.14 1 444/ 138
-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민주노총계 정갑득씨 당선/95.9.21 2 488/ 241
- 현중 노조위원장 징계위 회부, 노사대립 재연 조짐/95.9.28 1 493/ 250

<장성병원>

- 성희롱에 명든 백의의 천사, 택시 장성병원 간호사들에 접대 술시중 강요/95.6.7 1 418/ 82
- 장성병원 간호사 원직에 복직 성희롱 병원장, 노동부 직원 직위해제/95.6.10 1 421/ 88

<전해투>

- 4천만원 손해소송 청구 사당의원, 경찰 난입 항의/95.5.16 2 403/ 48

- LG해고자 복지촉구집회 노조간부, 집회 후 구속/95.5.20 2 407/ 56
- 경찰, 야당당사에 제집 드나들듯 해고자등 4명 연행/95.5.24 1 409/ 59
- 구속LG해고자 단식 16일째/95.6.7 1 418/ 82
- 삼미해고 노동자들 목숨 건 단식농성중/95.6.9 1 420/ 86
- <현장스캐치> 외로운 싸움을 독하게 견디는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/95.6.14 2 423/ 93
- 복지관에서 복지사 해고 광장복지관 내규위반으로/95.6.20 2 427/ 101
- 재야노동계, 해고자 자율교섭에 의한 복지 촉구,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/95.7.15 1 445/ 140
- LG그룹 해고자 2명 정식재판 도중 법정 구속/95.8.26 2 473/ 204
- 참여연대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항의서한 전달/95.9.6 2 480/ 222

<병역특례해고노동자>

- <독자투고>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이 노동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현실은 이제 끝나야 한다/95.5.25 3 410/ 63
- 병역특례 해고자 민주당사 농성 군문제해결 복직실현 요구/95.9.19 1 486/ 236
- 병역특례해고자 국방부 항의방문/95.9.28 1 493/ 250
- 전해투, 국방부앞 시위/95.10.7 3 499/ 267

<외국인노동자>

- 외국인노동자문제 노동조합이 나서야 ‘외국인노동자정책과 보호대책 국제세미나’에서 지적/95.6.1 1 415/ 75
- 외국인노동자 단체 수련회 7월1일부터 2박3일간/95.6.29 1 433/ 112
- 필리핀 산재산업연수생 반한시위 한국상품 불매운동벌어/95.9.7 2 481/ 224
- 대법원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“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권리유효”/95.9.20 2 487/ 239
- 외국인노동자문제 입법청원 추진/95.9.27 2 492/ 249
- 외국인노동자 88명 산재보상 청구, ‘귀향모임’ 1년여동안 피해사례수집 결실/95.10.6 1 498/ 263

<한국통신>

- 순수 노조활동을 파업으로 내모는 정부와 한국통신/95.5.19 1 406/ 53
- 실종된 노동권 대량구속 사태예고, 김대통령 “한국통신노조 국가전복 저의 있다”/95.5.20 1 407/ 55
- 한국통신노조에 경찰 투입, 노조 25일까지 단체행동 자제/95.5.23 1 408/ 57
- 각계, 노동운동탄압 저지 위해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키로/95.5.26 1 411/ 64
- 영장제시 무시·불법적인 가택침입, 경찰 한국통신노조 수배자 검거에 불법 자행/95.5.26 1 411/ 64
- 정부 불법적인 탄압 일삼아, 한통노조 준법투쟁/95.5.26 1 411/ 64
- 한국통신 ‘평화’로 가는길 징계·구속의 체찍 거둬야/95.5.27 2 412/ 67

- 한국통신 평화적 해결 촉구 각계 성명 잇따라/95.5.30 1 413/ 68
- 공권력 투입 방침 강력비난, 전국연합 성명/95.5.31 1 414/ 70
- 6월1일 노동인권대책위 구성/95.5.31 2 414/ 71
- “법도 모르는 정부”에 단호히 맞서기로, 노동인권대책위 출범/95.6.2 1 416/ 78
- 한국통신노조 교섭국장 박수호씨 인터뷰-한국통신노조 투쟁의 원천은 절대적인 조합원의 지지와 믿음/95.6.2 2 416/ 79
- 특별기고-‘준법’이 왜 ‘불법’인가(1) 박홍규 교수/95.6.7 2 418/ 83
- 종교계마저 등 돌린 ‘문민’정부 한국통신 사태에 시국기도회·법회등 천주교, 불교등 강경대응 선언/95.6.8 1 419/ 84
- 특별기고-‘준법’이 왜 ‘불법’인가(2) 박홍규 교수/95.6.8 2 419/ 85
- 천주교 사제들, ‘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’ 8일부터 명동성당 농성 돌입, 매일 시국미사 가질 예정/95.6.9 1 420/ 86
- 한통노조 지지 당부 민가협, 공권력 투입 비난/95.6.9 1 420/ 86
- 노동인권대책위, 민간 최초로 대통령 탄핵운동 추진, 대통령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박/95.6.10 1 421/ 88
- 대통령도 헌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, 노동인권대책위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탄핵운동 전개/95.6.13 1 422/ 90
- 한통노조 정의발생 신고 13일 단체교섭 가질 예정/95.6.13 1 422/ 90
- 불교계 1천80인 시국선언문 발표 천주교 김추기경 정부의 적극적 대책 요구/95.6.13 1 422/ 90
- 한통 노사 임금협상 재개/95.6.14 1 423/ 92
- 천주교 2만여명 공권력 투입 항의미사, 명동성당에서 두차례 촛불시위도 가져/95.6.14 2 423/ 93
- 한통노조 북한 사주 받아, 박홍총장 또 망언/95.6.15 2 424/ 95
- 정부 참회없이 용서할 수 없다, 6.6 교권유린 범불교도 시국법회/95.6.16 1 425/ 96
- 박홍, 근거없는 무책임 발언 이번엔 고발 당할 판/95.6.16 2 425/ 97
- “끝없는 망언, 박총장님 물러나시오” 서강대총학생회, 단식농성/95.6.17 1 426/ 98
- 위기모면하려는 교육책 이총리 담화에 재야 반박/95.6.17 2 426/ 99
- 대통령탄핵 서명 대중화, 노동인권대책위/95.6.17 2 426/ 99
-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, 1천4백여명 서명받아/95.6.21 1 428/ 102
- 박홍총장의 엇갈린 발언 강한 의구심 제기/95.6.21 2 428/ 103
- 언론 정정보도 청구 한통노조, 언론중재위에/95.6.21 2 428/ 103
- 서강대생 81%, “박홍발언 근거없다”/95.6.22 1 429/ 104
- 전국의 사제들 단식농성 확대/95.6.22 2 429/ 105
- 한통노조 간부 4명 연행/95.6.29 2 433/ 113
- 명동성당-조계사 공권력 투입 한 달, 성소난입 항의 행동 중단/95.7.6 1 438/ 126
- 한통노조 청구 언론중재 받아들여, 박홍총장 발언 정정보도/95.7.6 1 438/ 126
- 한국통신노조 철야농성, 주말 지부별 집회/95.7.13 2 443/ 137
- 한통노조 간부 4명 집행유예선고/95.8.18 2 467/ 192

<현대자동차 양봉수씨 사건>

- 올해협 노동자 텐트농성중 양봉수씨 분신사태 항의/95.5.16 1 403/ 47
- 현대노동자 작업거부·항의농성 확산 현대·노동부, 불법파업 규정 강경입장/95.5.17 1 404/ 49
-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분신, 노조행사 참가 정문에서 저지당하자 격분/95.5.13 1 402/ 45
- 분신 양씨 때돌리려/95.5.19 1 406/ 53
- 분신노동자 양봉수씨 사망 현중에 공권력 투입예상/95.6.14 1 423/ 92
- 양봉수씨 ‘노동자장’으로, 긴장 고조 민주노총 오는 17일 전국에서 추모집회 갖기로/95.6.15 2 424/ 95
- 고 양봉수씨 추모기도회/95.6.16 1 425/ 96
- 양봉수씨 유가족에 조건, 필리핀 금속노련/95.6.17 1 426/ 98
- 군사정권이 하던 시신탈취 뒤풀이 경찰, 폭력으로 고 양봉수씨 유골 탈취/95.6.20 1 427/ 100
- 영산강에 유해뿌려, 고 양봉수씨 장례식/95.6.21 1 428/ 102
- 현대자동차 고 양봉수씨 해고에서 장례까지/95.6.21 1 428/ 102
- 양봉수씨 유골 탈취 비난 불교인권단체 성명/95.6.23 1 430/ 106

<대우조선 박삼훈씨 사건>

- 대우조선 노동자 분신사망 “사용자 각성” 유서 남기고/95.6.22 1 429/ 104
- 대우조선 노조 잔업거부 노동계, 박씨분신 성명/95.6.23 1 430/ 106
- 대우노조 분사 텐트농성, 박삼훈씨 분신 대책 관련/95.6.28 1 432/ 110
- 오늘 대우조선 고 박삼훈씨 장례 ‘전국노동자장’으로 거제도 대우조선에서/95.6.29 1 433/ 112
- 고 박삼훈열사 장례식 열려, 대우조선 조합원 참석 방해하기도/95.6.30 1 434/ 114

<민주노총>

- 양봉수씨 ‘노동자장’으로, 긴장 고조 민주노총 오는 17일 전국에서 추모집회 갖기로/95.6.15 2 424/ 95
- “노조 간판 달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짓” 민주노총, 한국노총 ILO 총회 유인물 배포규탄/95.6.24 2 431/ 109
- 민주노총, 청와대에 노동자 사면복권 촉구/95.7.29 1 454/ 158
- 민주노총, 변형근로시간제 반대성명/95.9.1 1 477/ 215
- 민주노총 하반기 제3자개입금지 철폐 집중/95.9.21 2 488/ 241

<손종규> -> <국제>

<산업재해>

- 유해환경에서 작업도중 질식사, 안성 이성화학에서, 회사는 사인은폐하려/95.6.10 2 421/ 89
- 노동운동가 산재로 사망/95.7.4 2 436/ 122
- 7월은 산재재해 추방의 달, 노동·의료계 산재노동자 재활정책 촉구/95.7.12 1 442/ 134
- 산재추방의 달 주요행사 안내/95.7.12 2 442/ 135
- 산재노동자 문제와 사회보장을 위한 공청회, 산재노동자에게 일터를/95.7.20 1 447/ 144

<대전철도 서전씨 사건>

- 대전철도노동자 서전근씨 분신사망/95.9.5 1 479/ 219
- 분신한 서전근씨 분신이유도 모른 채 화장/95.9.6 1 480/ 221

<제3자개입금지>

- 한국, '의사표현의 자유' 후진국, 인권단체 국보법과 '제3자 개입금지' 철폐 요구/95.6.30 1 434/ 114
-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, UN인권이사회 손종규씨 사건 구제요구/95.9.15 1 484/ 231
- <손종규씨 사건자료>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/95.9.15 2 484/ 232
- <해설>손종규씨 사건 UN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/95.9.16 2 485/ 234
- 손종규씨 사건경과/95.9.16 2 485/ 234
- 제3자 개입금지조항에 의한 구속·수배자 현황/95.9.16 2 485/ 234
- 민주노총 하반기 제3자개입금지 철폐 집중/95.9.21 2 488/ 241

7. 노인

- 노인의 전화· 참여연대, 노인복지법· 생활보호법 개정 공청회/95.9.23 1 490/ 244
- <지상중계> 성공회대 주최 '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' 세미나 - 고령화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절실/95.9.28 1 493/ 251

8. 도시빈민

<노점상>

- 성동경찰서 항의노점상 구속, 발가벗긴 채 고문/95.8.29 1 474/ 205
- 성동경찰서 구속 노점상 박영생씨 진료 받아/95.8.30 1 475/ 207
- 장애인노점상추진위원회란?/95.8.30 1 475/ 207
- 장애인노점상 구속·경찰폭행 규탄 집회, 생존권 보장요구/95.9.5 1 479/ 219

<세계주거권회의>

- 세계주거권회의 개최 배경/95.9.13 1 482/ 227
- 세계주거권회의민간위원회 결성, 인간중심의 도시화와 주거권 확립 노력/95.10.10 1 500/ 268
- 제2차 세계주거권회의 민간단체 공동대응, 주거문제 인식 전환 기회/95.9.13 1 482/ 227

<철거민>

- 철거대리 공동대응키로 고소·고발운동등 펼쳐/95.5.16 1 403/ 47
- 오늘은 '무주택자의 날' 강제철거 중단 요구/95.6.3 1 417/ 80
- 무주택자 주거안정 촉구/95.6.7 1 418/ 82
- 목동 철거민 생존권 쟁취결의대회/95.8.5 1 459/ 173
- <인권피해자들의 추석3> 철거민, 추석 생각할 겨를도 없어/95.9.7 2 481/ 224
- 암사동 철거현장 경찰 옷벗겨진 여성주민 그대로 연행/95.9.20 1 487/ 238
- 암사동 철거현장 연행 여성주민 "강제로 옷벗겨 희롱했다" 주장/95.9.21 2 488/ 241
- 성폭행피해자 피고석에, 봉천동 전철순씨 재판/95.9.28 1 493/ 250
- 번3동 철거현장, 종암서 경찰 대학생에 총기난사/95.10.5 1 497/ 261
- 서철연 창립기념대회, 생존권 위협 단호대처/95.10.10 2 500/ 269
- 전철연, 5.18 투쟁천명/95.10.10 2 500/ 269

9. 미군범죄

- 이 나라는 미군들의 무법천지/95.5.23 1 408/ 57
- 하루가 멀다하고 미군범죄, 사회단체들 한미협정개정 목소리 드높아/95.5.24 1 409/ 59
- 미군범죄 규탄 확산/95.5.27 1 412/ 66
- 주한미군범죄 근절하라, 여성단체등 시위/95.5.31 1 414/ 70
- 부산땅 허야리아 되찾기 시민대책위등 '민족통일해원상생국' 가져/95.7.5 2 437/ 125
- 동두천에서 조기덕씨, 미군에 매맞고도 치료비 없어 수술 못해/95.7.12 2 442/ 135
- 주한미군 용산기지 인간떠앗기 대회/95.8.8 1 460/ 176
- 미군건 주민 물어, 미군처벌 성명 잇따라/95.10.10 1 500/ 268

<설은주씨등 세모녀 폭행사건>

- 미군폭행 당한 모녀 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/95.5.25 2 410/ 62

<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>

-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/95.5.13 2 402/ 46
- 경찰, 불허집회 허용키로 2일, 주한미군범죄규탄 집회/95.6.1 1 415/ 75

-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 요구 주한미군범죄운동본부, 서울역서 서명운동 선포식/95.6.3 1 417/ 80
- 한미행정협정 토론의 장/95.6.7 1 418/ 82
- 미군범죄운동본부 주한미대사 미군범죄 발언 사과 요구/95.9.14 1 483/ 229

<충무로 폭행사건>

- 재야단체 미군 성명 뉘엿스럽다, 강한 반발/95.5.25 1 410/ 61
- 미군관련 사건에 관한 주한미군 대변인의 성명서 전문/95.5.25 2 410/ 62
- 여성단체, 성희롱 미군 공정수사 촉구/95.5.27 1 412/ 66
- 조정국씨 단식농성 연기/95.6.8 1 419/ 84
- 조정국씨 단식농성 시작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/95.6.9 1 420/ 86
- 레이니 주한미대사 반미감정 발언 사과 요구/95.8.29 1 474/ 205

10. 법제

- 헌법재판소,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/95.5.26 2 411/ 65
- 통합선거법 제검토 요구/95.5.27 1 412/ 66
- 자료-광주 만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(안)/95.8.25 2 472/ 202

11. 북한인권

- 북한 수감자 8백명 이상, 반국가행위자는 2백40명 국제앰네스티, 북한 방문 결과 발표/95.5.13 1 402/ 45
- 『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』 북한편 “확인할 수 없는 수백명의 정치범”/95.7.8 2 440/ 131
- 앰네스티 북한 황씨3형제 양심수 선정, 회원들에 긴급행동 요청/95.9.15 2 484/ 232
- 여성단체연합 한달간 북한 수재민돕기 캠페인/95.9.16 1 485/ 233

12. 불처벌

<5.18사건>

- 5.18 광주민중항쟁 15돌 기념행사일정/95.5.16 2 403/ 48
- 한총련, 5.18책임자처벌 농성/95.5.18 2 405/ 52
- 최규하씨 면담 거절, 여성계 대표들 결단 촉구/95.5.19 2 406/ 54
- 광주책임자기소 촉구 부천시민 1980인 선언, 광주에서는 8월까지 캠페인 지속키로/95.5.30 2 413/ 69

- 광주 5.18 헬기난사 목격자를 찾는다 광주정평위, 검찰 수사의지 없어 직접 찾기로/95.5.31 1 414/ 70
- 최전대통령 증언 나서라, 5.18 국민위원회등 성명/95.6.9 1 420/ 86
- 광주 증언 미루면 역사의 죄인 5.18 국민위 최전대통령에게 증언 촉구 서한 전달/95.6.15 1 424/ 94
- 최규하씨 증언 거부 입장 되풀이, 종교계도 서한 전달/95.6.17 2 426/ 99
- 체노사이드 조약/95.7.11 1 441/ 132
-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5.18불기소,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/95.7.11 1 441/ 132
- 5.18불기소 방침, 재야단체 저지 나서/95.7.12 1 442/ 134
- 광주 5월단체, 5.18책임자 기소 요구/95.7.15 2 445/ 141
- 검찰, 광주학살 책임자 모두에게 면죄부, 5월단체-재야 항의투쟁 계획/95.7.19 1 446/ 142
- 5.18공대위 상경 명동성당 농성돌입/95.7.20 1 447/ 144
- <현장스케치> 명동성당에서 텐트농성하는 5.18 희생자들/95.7.21 1 448/ 146
- 민변, 전두환씨등 7명 국회위증 혐의 고발/95.7.22 1 449/ 148
- 주말규탄집회로 분위기 고조, 특별법-특별검사제 도입요구/95.7.22 1 449/ 148
- <특별기고> 검찰의 5.18불기소 논거에대한 헌법적 비판, 5.18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(서경석 인하대 강사)/95.7.22 2 449/ 149
- 5.18국민위, 검찰불기소 취소에 맞서 헌법소원/95.7.25 1 450/ 150
- 참여연대, 검찰총장 직무유기 국회 탄핵소추해야/95.7.25 2 450/ 151
- 자료-5.18학살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, 헌법소원 청구취지서/95.7.25 2 450/ 151
- 5.18 학살자 기소촉구 도보행진, 망원동에서 청와대까지/95.7.25 2 450/ 151
- 5.18광주민중항쟁연합등 5.18검찰 불기소 불복, 서울고검에 항고/95.7.26 1 451/ 152
- 참여연대등,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 청원/95.7.26 2 451/ 153
- <해설> 특별검사제,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/95.7.27 2 452/ 155
- 사제단, 5.18불기소 경위 공개 재수사 요구/95.7.28 1 453/ 156
- 5.18 불기소 김영삼정권 퇴진 주장, 2차 국민대회 명동성당까지 행진/95.7.29 1 454/ 158
- <현장스케치> ‘식발식’ 끝에 터져버린 5.18 유가족의 눈물/95.7.29 1 454/ 158
- 5.18광주불기소 항의 점차 확산, 교수들 집단성명, 공대위 단식농성돌입/95.8.1 1 455/ 165
- 경찰 원천봉쇄로 5.18 천막농성 연기/95.8.2 1 456/ 167
- 고려대 교수들 성명-5.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/95.8.4 1 458/ 171
- 5.18 불기소 항의 확산, 광주 전남지역 교수, 작가회의 성명/95.8.4 1 458/ 171
- 5.18공대위등 대검찰 재항고 기각에 대검찰청 항의방문/95.8.5 1 459/ 173
- 5.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국토종단대행진 가져/95.8.8 1 460/ 176
- 5.18학살자 처벌주장, 한총련 단식 농성 돌입/95.8.9 1 461/ 178
- 외대교수 1백6명, 5.18성명 확산/95.8.9 2 461/ 179
- 민교협 5.18 불기소 항의농성 중,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/95.8.16 2 465/ 187
- 전남대, 목포대 등 교수들 5.18특별법 제정 움직임 확산/95.8.16 2 465/ 187

- 5.18부상후 사망자 유족, 전두환·노태우씨 등 살인혐의로 고소/95.8.17 1 466/ 189
- 5.18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, 5.18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, 합법집회 경찰 난입 기자 등 30여명 부상/95.8.17 1 466/ 189
- 5.18 유족의 목소리, 우리 아들을 두번씩이나 죽여/95.8.17 2 466/ 190
- 5.18국민위 항의방문단, 서대문경찰서 불법감금/95.8.18 2 467/ 192
- 서대문경찰서, 5.18시위 진압 항의 7명, 불법구금 뒤 경범죄등으로 즉심 회부/95.8.19 2 468/ 194
- 5.18 책임자 기소촉구대회 경찰 진압현장 목격기-‘마치 그곳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’/95.8.19 2 468/ 194
- 5.18농성단 새로운공동투쟁 제안/95.8.22 1 469/ 195
- 보건의료단체 5.18특별법 서명운동 벌여/95.8.24 2 471/ 200
- 교수들사상 최대 집단행동, 5.18 특별법안등 국회청원/95.8.25 1 472/ 201
- <자료>-광주 만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(안)/95.8.25 2 472/ 202
- 헌법파괴적 범죄등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(안)/95.8.25 2 472/ 202
- 불교계 5.18 책임자 기소 성명 발표/95.8.26 1 473/ 203
- 5.18교수 서명,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/95.8.26 1 473/ 203
- 서울대 교수 2백21명 5.18 불기소 취소 서명/95.8.30 2 475/ 208
-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/95.8.31 1 476/ 209
- 전남교사 4백여명 5.18불기소 항의성명/95.9.1 1 477/ 215
- <자료>5.18 학살주동자 구속 기소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남교사선언문/95.9.2 2 478/ 218
- <인권피해자들의 추석2> 농성 50일째 명동성당 5.18 농성자들/95.9.6 2 480/ 222
- 5.18 사회단체연석회의 구성/95.9.7 2 481/ 224
- 민교협 5.18 불기소는 직무유기, 검찰총장등 탄핵소추 요구/95.9.13 2 482/ 228
- 5.18 책임자 처벌 4차국민대회, 청원 잇따라 5.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가속화/95.9.16 1 485/ 233
- 5.18 불기소에 대한 각계 반응/95.9.16 3 485/ 235
- 5.18 특별법 제정 천주교 12만3천여명 서명 국회청원/95.9.19 2 486/ 237
- <자료>천주교인 5.18 특별법 제정 청원서/95.9.19 2 486/ 237
- 5.18 특별법 학생농성 시위가열 한총련 9월말 동맹휴업/95.9.20 1 487/ 238
- 5.18 불기소 항의 범국민적 투쟁발전 청년단체 농성, 의료인 가운시위등 적극행동/95.9.21 1 488/ 240
- 5.18국민위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64명 특별법제정 촉구/95.9.22 1 489/ 242
- 5.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.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/95.9.23 1 490/ 244
- 부산목회자·예장장로회 5.18 항의성명/95.9.26 1 491/ 246
- 5.18 항의시위 주말 최대예상 국민대회 서명운동 계속/95.9.28 1 493/ 250
- 서울교사 1천7백여명 5.18특별법 제정 촉구, 한총련 총궐기 30만명 서명돌입/95.9.29 1 494/ 252
- 전국 5.18 시위 격화, 오늘 제5차 국민대회/95.9.30 1 494/ 254
- 10월 5.18 파고 더 거세진다, 내년 총선까지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/95.10.4 1 496/

259

- 상명여대 교수 5.18 특별법 성명/95.10.6 2 498/ 264
- <자료>대한변협 서명운동 취지문-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바라며/95.10.6 2 498/ 264
- <현장스케치>80일 맞은 5월단체 명동성당 농성장-특별법 제정때까지 무기한 농성/95.10.7 2 499/ 266
- 전국연합, 5.18 국회위증수사 촉구/95.10.7 3 499/ 267
- 5.18서명교수모임, 박교육부장관 발언 항의/95.10.10 1 500/ 268
- 전철연, 5.18 투쟁천명/95.10.10 2 500/ 269

<정신대> -> <여성>

<삼청교육대>

- 삼청교육 피해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/95.5.30 2 413/ 69
- 검찰, 삼청교육대 관련 고소·고발에 “공소권 없음” 결정/95.8.22 1 469/ 195
- 삼청진상규명투쟁위원회 진상규명 제차 요구/95.8.24 2 471/ 200

13. 사회보장권

- 사람을 위한 발전 촉구, 전국연합 정책토론회/95.5.17 1 404/ 49
- 수도권 교통특별법 필요 지하철개혁 시민토론회/95.6.3 1 417/ 80
- 조흥화학 염산가스 누출, 주민들 항의농성 회사는 무대책으로 일관/95.6.21 1 428/ 102
- 나주 농민의원 7월15일 개원/95.6.22 2 429/ 105
- 정부, 군사정권의 개발독재 되풀이 성남시에 철거강제까지 동원 국내 최대 저유소 강행/95.6.24 1 431/ 108
- 아시아 발전 모델 재검토, 국제위크샷/95.7.8 2 440/ 130
- <인터뷰> 나주 「농민치과의원」 한동금 원장 “농민건강의 모든 것, 책임질 터”/95.7.19 2 446/ 143
- 핵발전소 생존권 위협, 전남 영광 주민들 핵발전소 추방결의/95.10.4 1 496/ 259

<대형참사>

- 대구 재야단체 단식농성, 대구참사 축소수사 항의/95.5.13 1 402/ 45
- 인간중심의 개발, 확고히 자리잡아야,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보고/95.7.1 1 435/ 119
- “부실시공 이제 그만” 시민·사회단체 삼풍관계자 엄중처벌 요구/95.7.4 1 436/ 122
- 삼풍백화점 희생자 추모집회/95.7.7 1 439/ 128
- 삼풍붕괴사고 축소수사 비난/95.7.14 2 444/ 139

<포천병원적축물 소각장 반대운동>

- 병원적출물 소각장 반대/95.5.24 2 409/ 60
- 병원적출물 폐기장 해결 안되면 지자체 선거 거부 「포천병원적출물 폐기물 소각장 대책위」 밝혀/95.6.13 2 422/ 91
- 포천 병원적출물소각장 사태 경찰 군의회 조사 중 난입 수배자 연행/95.9.19 1 486/ 236

- 포천병원적출물 소각장 사태위기 주민저지로 공사일단 연기/95.9.20 2 487/ 239

14 사회단체

- 대구 재야단체 단식농성, 대구참사 축소수사 항의/95.5.13 1 402/ 45
- 재야단체 미군 성명 뻔뻔스럽다, 강한 반발/95.5.25 1 410/ 61
-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/95.5.26 2 411/ 65
- “부실시공 이제 그만” 시민·사회단체 삼풍관계자 엄중처벌 요구/95.7.4 1 436/ 122

<민교협>

- 고려대 교수들 성명-5.18 검찰 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/95.8.4 1 458/ 171
- 5.18 불기소 항의 확산, 광주 전남지역 교수, 작가회의 성명/95.8.4 1 458/ 171
- 외대교수 1백6명, 5.18성명 확산/95.8.9 2 461/ 179
- 민교협 5.18 불기소 항의농성 중,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/95.8.16 2 465/ 187
- 전남대, 목포대 등 교수들 5.18특별법 제정 움직임 확산/95.8.16 2 465/ 187
- 교수들 사상 최대 집단행동, 5.18 특별법안등 국회청원/95.8.25 1 472/ 201
- 헌법과피적 범죄등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(안)/95.8.25 2 472/ 202
- 5.18교수 서명,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/95.8.26 1 473/ 203
- 서울대 교수 2백21명 5.18 불기소 취소 서명/95.8.30 2 475/ 208
- 상명여대 교수 5.18 특별법 성명/95.10.6 2 498/ 264
- 5.18서명교수모임, 박교육부장관 발언 항의/95.10.10 1 500/ 268

<전국연합>

- 시위통제선 철회요구 전국연합, 집회자유 침해/95.5.13 2 402/ 46
- 사람을 위한 발전 촉구, 전국연합 정책토론회/95.5.17 1 404/ 49
- 공권력 투입 방침 강력비난, 전국연합 성명/95.5.31 1 414/ 70
- 전국연합,한국·북한·미국 평화협정 체결해야/95.7.28 1 453/ 156
- 전국연합, 장기수·양심수 석방 촉구/95.8.4 1 458/ 171
- 전국연합, 경찰폭력 규탄/95.8.22 1 469/ 195
- 검찰 박용길 장로기소, 전국연합 비난성명/95.9.6 2 480/ 222
- 전국연합 검찰총장 내정자 교체 논평/95.9.13 2 482/ 228
- 전국연합 경찰 실탄발사 항의성명/95.9.14 1 483/ 229
- 5.18 책임자 처벌 4차국민대회, 청원 잇따라 5.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가속화/95.9.16 1 485/ 233

- 전국연합 박용길 장로 제수감 비난성명/95.9.20 2 487/ 239
- 5.18 항의시위 주말 최대예상 국민대회 서명운동 계속/95.9.28 1 493/ 250
- 전국연합, 5.18 국회위증수사 촉구/95.10.7 3 499/ 267

<참여연대>

- 참여연대, 검찰총장 직무유기 국회 탄핵소추해야/95.7.25 2 450/ 151
- 참여연대등, 특별검사제 도입 입법 청원/95.7.26 2 451/ 153
- 참여연대, 박용상 부장판사 해임운동필철터/95.7.28 2 453/ 156
- 노인의 전화, 참여연대 노인복지법·생활보호법 개정 공청회/95.9.23 1 490/ 244

15. 아동

- 방치된 어린이 전화친구 부스러기선교회, 개통식/95.5.16 2 403/ 48
- 경찰 청소년단체 광주기행 막아/95.5.25 2 410/ 62
- ‘청소년의 대합창’ 문화행사 성황리에 열려 구로시민회, ‘내게로 열려진 세상의 빛을 찾아’ 주제로/95.6.13 2 422/ 92
- 어린이·청소년등 2-3일에 한명꼴로 자살, 94년 자살 1백48명, 가출 1만1천3백63건/95.7.4 1 436/ 122
- 제1회 청소년 열린학교 입학식 가져/95.7.19 1 446/ 142
- 지탁연등 민간단체 ‘5세 아동입학’ 반대/95.9.22 1 489/ 242
- 5세아 취학반대, 유치원 공교육화를-오늘, 인천교사모임 공청회/95.9.30 1 494/ 254

<어린이청소년권리연대회의>

- <유엔 어린이·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3> 부모·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/95.5.17 2 404/ 50
- <유엔 어린이·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4>-의견표명권 “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”/95.5.20 2 407/ 56
- <유엔 어린이·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5>“말하고 싶다, 알고 싶다, 전하고 싶다”/95.5.24 2 409 / 60
- <유엔 어린이·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6>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:아동학대/95.5.27 2 412/ 67
- 유엔 어린이·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 마지막회-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: 난민, 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/95.6.3 2 417/ 81
- “어린이 인권보고서 완성” 어린이 이익 최우선의 원칙 담아 21개 민간단체 참여, 연대회의 결실/95.7.8 1 440/ 130
- <해설>정부·민간보고서 어떻게 심의되나/95.7.8 1 440/ 130

16. 양심수, 장기수

- 장기수 고 윤기남씨 묘지 광주시청 이장압력/95.5.13 2 402/ 46
- 윤기남씨 묘 강제이장 광주시청, 가족동의 없이/95.5.16 1 403/ 47
- 김무용씨 양심수 선정, 무조건 석방촉구 국제엠네스티, 사상과 표현의 자유보장되어야/95.5.18 1 405/ 51
- 장릉 밑에 도청기? 출소 장기수 할머니 집에서 발견돼/95.5.30 1 413/ 68
- 광주시의원 오종렬의장 징역 3년10월선고/95.6.3 2 417/ 81
- 제일한국인 정치범 석방 촉구, 일본국회의원 서명 청와대 등에 전달/95.7.5 2 437/ 125
- 『국제엠네스티 보고서 1995』 남한편2 “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 여전히 감옥에/95.7.8 2 439/ 131
- 민가협, 목요집회서 양심수 건강실태 보고 “장기수 병마에 시달린다”/95.7.14 1 444/ 138
- 대전교도소 장기수들의 건강실태/95.7.14 1 444/ 138
- 일본 구원회, 이화춘씨 석방 촉구 집회/95.7.26 2 451/ 153
- 전국연합, 장기수·양심수 석방 촉구/95.8.4 1 458/ 171
- 장의균씨 만기출소/95.8.5 1 459/ 173
- 국제엠네스티, 긴급행동 돌입 박용길 장로 양심수 선정 은수미씨 건강악화 석방촉구/95.8.5 1 459/ 178
-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,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/95.8.9 1 461/ 178
- 법무부·대전교도소, 김선명씨 면회 불허/95.8.10 1 462/ 180
- 8.15맞아 남북한 정부에 엠네스티 양심수 석방 촉구/95.8.11 1 463/ 182
- 불교인권위원회, 북송 장기수 문제 논의차 남북불교도 논의 제안/95.8.25 1 472/ 201
- 유엔인권위 실무분과 이장형씨등 11명 자의적 구금결정/95.9.7 1 481/ 223
- 제일교포 이성우씨 석방/95.10.7 3 499/ 267

<사회안전법>

- 오늘 장기수 손배소송 선고/95.6.15 2 424/ 95
- 사회안전법 소송 연기/95.6.16 1 425/ 96
- 장기수 재판 선고 또 연기/95.6.23 2 430/ 107
- 사회안전법손배소송 심리재개/95.7.21 2 448/ 147

<조작간첩>

- 천주교 제주교구 관계자 조작간첩 이장형씨 만나/95.5.13 2 402/ 46
- 조작간첩 접견허용 촉구 천주교인권위, 법무장관 면담/95.6.20 1 427/ 100
- 조작간첩 조사 방일 천주교인권위원회/95.6.29 1 433/ 112
- 장기수 캠페인-〈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③〉 3. 제일동포관련 사건-조국을 찾아온 댓가가 ‘간첩’/95.8.4 2 458/ 172
- 장기수 캠페인-〈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〉 4. 일본관련 사건-조작간첩의 황금어장

/95.8.5 2 459/ 174

- 장기수 캠페인-〈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⑤〉 5. 남북어부 사건-오래전 남북이 간첩으로 둔갑/95.8.9 2 461/ 179

<장기수캠페인>

- 장기수 캠페인-〈분단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①〉 1. 기획을 시작하며-분단의 철창에 갇혀 세월마저 잊은 이들/95.8.2 1 456/ 167
- 장기수 캠페인-〈분단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②〉 2. 초장기수-20년 넘게 고문·전향공작으로 짓밟혀/95.8.3 2 457/ 170
- 장기수 캠페인-〈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③〉 3. 제일동포관련 사건-조국을 찾아온 댓가가 ‘간첩’/95.8.4 2 458/ 172
- 장기수 캠페인-〈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〉 4. 일본관련 사건-조작간첩의 황금어장/95.8.5 2 459/ 174
- 장기수 캠페인-〈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⑤〉 5. 남북어부 사건-오래전 남북이 간첩으로 둔갑/95.8.9 2 461/ 179
- 장기수 캠페인-〈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〉 6. 행방불명되었던 가족-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/95.8.10 2 462/ 181
- 장기수캠페인-〈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⑦〉 7. 민주·통일운동 관련-순수한 열정에 가혹한 징역/95.8.11 2 463/ 183
- 장기수 캠페인-〈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⑧〉 8. 기획을 마치며-사상양심의 자유는 최소한의 기본권/95.8.12 2 464/ 185

<양심수캠페인>

- 각계 1995인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, 7일부터 일주일간 캠페인 펼쳐/95.8.3 1 457/ 169
- 현장스케치-명동성당 하루감옥 체험/95.8.8 1 460/ 176
- 최장기수 김선명 석방 캠페인 시작, 전국4백65명 양심수 무기단식/95.8.8 1 460/ 176
- 45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이틀째/95.8.9 1 461/ 178
- 민가협 목요집회 1백회, ‘양심수 없는 날’ 그리며/95.8.11 1 463/ 182
- 부산지역 5백인, 국보법·양심수 석방 선언/95.8.11 1 463/ 182

<8.15 사면>

- 사면복권 8.15 이후로 연기 가능성/95.7.27 1 452/ 154
- 8.15 50주년 대사면 김선명씨등 양심수 고작 25명 석방, 기득권층만 대폭 혜택, 초장기수 24명등 양심수 4백40여명 남아/95.8.12 1 464/ 184
- 8.15 특별사면복권에 대한 각계 반응 /95.8.12 2 464/ 185
-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씨 출소, 한국 아직도 세계 최장기수의 나라/95.8.16 1 465/ 186
- 비전향장기수 3인 경력/95.8.16 2 465/ 187
- 5.3동의대 사건 윤창호씨 출소 소감/95.8.16 2 465/ 187

- 장기수문제 해결 안돼, 8명 석방 불구 장기수 총65명 남아/95.8.17 2 466/ 190
- 김선명씨 45년만에 어머니 만나/95.9.1 1 477/ 215

<조작간첩 신귀영씨 사건>

- 조작간첩 신귀영 15년만에 만기출소/95.6.20 1 427/ 100
-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신귀영씨 인터뷰 “사상진향제도 반드시 없어야”/95.7.5 2 437/ 125
- 부산지법 ‘신귀영씨 일가 사건’ 재심 결정,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/95.7.25 1 450/ 150
- 부산신씨일가 간첩단 사건, 재심결정에 부산검찰 항고/95.7.27 1 452/ 154
- 신귀영씨 재심결정 항고 기각/95.9.5 1 479/ 219

17. 여성

- 최규하씨 면담 거절, 여성계 대표들 결단 촉구/95.5.19 2 406/ 54
- 주한미군범죄 근절하라, 여성단체등 시위/95.5.31 1 414/ 70
- 국제인권소식-엠네스티 여성 권리신장 캠페인/95.6.22 2 429/ 105
- 국제인권소식-홍콩 여성노동자도 86% 성희롱 경험/95.6.29 2 433/ 113
-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,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절실한 시설의 공개화/95.8.24 1 471/ 199
- 경기도여자기술학원사건대책협의회, 매매준여성복지대책 촉구/95.8.26 1 473/ 203
- 여성단체연합 한달간 북한 수재민돕기 캠페인/95.9.16 1 485/ 233
- 할당제 여성연대, 2천년까지 여성고용 30% 실현요구/95.10.7 1 499/ 265

<여성민우회>

- 여성민우회·일본생활클럽 여성정치진출 다짐/95.9.21 2 488/ 241
- 성희롱시민연대 결성, “잘못된 성문화 바로잡자”/95.10.4 1 496/ 259
- 여성단체 고용평등의 달 다양한 행사, 여성평생평등고용 확보목표/95.10.5 1 497/ 261

<여성의 전화>

- 배변호사 자격박탈 진정 한국여성의 전화/95.5.16 2 403/ 48
- 「법정평등 실현을 위한 모임」 회원 모집 한국여성의 전화/95.6.17 2 426/ 99
- 한국여성의 전화 격월간지 제호 공모 /95.7.13 1 443/ 136
- 한국여성의 전화,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논의/95.7.21 2 448/ 147
- 한국여성의 전화, 가정평화를 위한 노래 공모/95.8.9 2 461/ 179
- 한국여성의 전화, 25기 여성상담원 교육/95.8.16 2 465/ 187
- 한국여성의 전화, 성교육 강좌 열어/95.8.24 2 471/ 200

- 여성의 전화 ‘법정평등실현모임’ 발족/95.9.14 2 483/ 230
- 한국여성의 전화등, 가정폭력방지 바자회/95.10.4 1 496/ 259

<서울대 우조교>

- ‘성희롱 국가에도 책임있다’,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/95.5.24 2 409/ 60
-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패소, 재판부 성희롱 보수적 입장 드러내/95.7.26 1 451/ 152
-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/95.7.26 2 451/ 153
-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, 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발표 요지/95.7.27 2 452/ 155
- 참여연대, 박용상 부장판사 해임운동필필터/95.7.28 2 453/ 157
- <자료> 박용상 부장 판사 관련 주요기사, 노동자·학생제판 원심보다 높게 선고/95.7.28 2 453/ 157
- 여성시민단체 성희롱 항소심 규탄집회, 남성위주 편견 재확인/95.8.3 1 457/ 169
- 성희롱 사건 우조교 대법원 상고/95.8.18 1 467/ 191

<북경여성대회>

- '95 북경여성대회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/95.7.7 1 439/ 128
- NGO한국위원회 보고서①-여성과 사회개발/95.8.23 2 470/ 198
- 통계청 ‘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’ 삶의 질 어디까지 왔나?/95.8.23 2 470/ 198
- NGO한국위원회 보고서②-여성과 교육/95.8.24 2 471/ 200
- 북경여성대회 NGO민간단체 어떤 활동을 하나/95.8.26 2 473/ 204
- NGO한국위원회 보고서③-여성과 폭력/95.8.26 2 473/ 204
- NGO한국위원회 보고서④-장애여성/95.8.29 2 474/ 206
- 한국NGO위원회 북경세계여성회의 보고회, “여성의 평등실현 전략 마련”/95.10.7 1 499/ 265
- <자료>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/95.10.7 3 499/ 267

<성폭력상담소>

- 성희롱 예방 교육 비디오 나와/95.8.23 1 470/ 197
- 성폭력상담소 성희롱예방비디오 시사회, 직장상사 직장내 성희롱 주범/95.9.26 2 491/ 247

<성폭력, 성희롱>

- 한국여성의 전화, 배변호사 자격박탈 진정/95.5.16 2 403/ 48
- 여성단체, 성희롱 미군 공정수사 촉구/95.5.27 1 412/ 66
- 성희롱에 멍든 백의의 천사, 태백시 장성병원 간호사들에 접대 술시중 강요/95.6.7 1 418/ 82
- 학칙에 성희롱 방지 촉구, 서울대 총학생회 학교측에/95.6.15 2 424/ 95
- 장성병원 간호사 원직에 복직 성희롱 병원장, 노동부 직원 직위해제/95.6.10 1 421/ 88

- 직장내 여성차별·성폭력 법으로 막자, 여성·노동 9개 단체 국회청원/95.7.5 1 437/ 1 24
- 성폭행피해자 피고석에, 봉천동 전철순씨 재판/95.9.28 1 493/ 250

<정신대>

-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다음주 방한, 일본군 중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청취등 조사 활동/95.5.12 1 401/ 43
-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방한 연기/95.5.13 2 402/ 46
- 유엔특별보고관 중군위안부 조사위해 최초 방한/95.5.24 2 409/ 60
- 유엔, 군위안부 실태 조사 일본군의 조직적 강간 확인/95.5.27 1 412/ 66
- 방패막이 민간기금안, 뒷줄에 선 일본정부 중군위안부 피해자들 납득못해/95.6.16 1 425/ 96
- 굴욕적인 대일외교 비난 정대협, 위안부 문제에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촉구/95.6.23 1 430/ 106
-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방한, 일본군위안부 실태조사/95.7.17 1 446/ 142
- 정대협 175차 수요시위, '아시아평화우호기금' 철회 촉구/95.7.20 2 447/ 144
-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강연회 모든형태의 여성차별 제거해야/95.7.22 1 449/ 148
- 정대협, 일수상당화 비판, 법적 책임 요구/95.8.18 2 467/ 190
- 정대협등 여성단체 일본 민간기금 위안부조사 반대/95.9.13 1 482/ 227

<지탁연>

- 지탁연등 민간단체 '5세 아동입학' 반대/95.9.22 1 489/ 242

18 인권교육

- 인권교육 필요성 절감, AI 한국지부 워크샵/95.6.14 2 423/ 93
- 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교육 2박3일간 가져/95.7.13 2 443/ 137
- 국내 최초 '인권교육' 필수과목으로, 성공회대 인권운동가로 강사진 꾸려/95.8.30 1 475/ 207
- ARRC, 인권교육 워크샵 개최/95.8.31 1 476/ 209
- ARRC 태국에서 인권교육가 워크샵 진행, 참여자 중심의 인권교육 공동훈련/95.10.5 2 497/ 262
- 아디다스 인권교육 방법이란/95.10.5 2 497/ 262
- 천주교인권위, 총회서 신자 대상 인권교육 결의/95.10.10 2 500/ 269

19 인권단체

- 대구 양심수후원회 발족/95.6.20 2 427/ 101

- 외국인노동자 단체 수련회 7월1일부터 2박3일간/95.6.29 1 433/ 112
- 한국, '의사표현의 자유' 후진국, 인권단체 국보법과 '제3자 개입금지' 철폐 요구/95.6.30 1 434/ 114
- 남아공 대통령 만델라 방한, 인권단체들 비판적 성명발표/95.7.8 1 439/ 128

<고난모임>

- 고난모임, 보안관철법 폐지 기도회/95.9.28 2 493/ 251

<강기훈 공대위>

- 강기훈 공대위 항고/95.7.5 1 437/ 124
- 유서사건공대위, 항고이유서보충서 제출/95.8.9 1 461/ 178

<불교인권위>

- 제4회 불교인권상 수상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/95.5.13 2 402/ 46
- 양봉수씨 유골 탈취 비난 불교인권단체 성명/95.6.23 1 430/ 106
- 불교인권위 7.4공동성명 발표, 23주년 국보법 철폐 요구/95.7.3 2 437/ 125
- 교계 5.18 책임자 기소 성명 발표/95.8.26 1 473/ 203
- 불교인권위 장기수 복송 판문점 회담 제안/95.9.27 2 492/ 249

<민가협>

- 한통노조 지지 당부 민가협, 공권력 투입 비난/95.6.9 1 420/ 86
- 경찰폭력 책임 처벌 촉구 민가협 목요집회에서/95.6.16 1 425/ 96
- 5월부터 41일 동안 1백61명 구속 민가협 발표, 지자체 앞두고 구속자 급증/95.6.17 1 426/ 98
- 민가협, 목요집회서 양심수 건강실태 보고 "장기수 병마에 시달린다"/95.7.14 1 444/ 138
- 민가협 목요집회 1백회, '양심수 없는 날' 그리며/95.8.11 1 463/ 182

<엠네스티 한국지부>

- 인권교육 필요성 절감, AI 한국지부 워크샵/95.6.14 2 423/ 93
- 불교인권위 인권법당 오늘 집들이 예불/95.6.20 2 427/ 101
- 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교육 2박3일간 가져/95.7.13 2 443/ 137
- AI한국지부 전국교육대회 가져, 자국내 가이드라인변화 큰 관심/95.7.17 2 446/ 143
- 엠네스티 한국지부, 한일인권세미나 개최/95.8.16 2 465/ 187

<천주교인권위>

- 조작간첩 접견허용 촉구 천주교인권위, 법무장관 면담/95.6.20 1 427/ 100
- 조작간첩 조사 방일 천주교인권위원회/95.6.29 1 433/ 112

<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>

- 민변, 전두환씨등 7명 국회위증 혐의 고발/95.7.22 1 449/ 148

<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> -> <미군범죄>

<유가협>

- 민주운동에 헌신한 2백41명 합동추모제 가져 오늘 성균관대에서 종묘공원까지 행진도 /95.6.10 2 421/ 89
- 국민고충처리위원회, 군 의문사 허원근씨 사건 제조사 촉구/95.8.26 1 473/ 203
- <인권피해자들의 추석1> 유가족-무덤하나 가슴에 안고/95.9.5 2 479/ 220
- 유가협 10차총회 열사묘역 성역화등 결의/95.9.26 1 491/ 246

<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> -> <장애인>

<인권협>

- 인권협, 대표·간사단체 변경/95.7.29 1 454/ 159

<KNCC인권위>

- KNCC, 최규하씨 증언 촉구건의/95.5.18 2 405/ 52

<인권운동사랑방>

- “어린이 인권보고서 완성” 어린이 이익 최우선의 원칙 담아 21개 민간단체 참여, 연대회의 결실/95.7.8 1 440/ 130
- 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교육 2박3일간 가져/95.7.13 2 443/ 137
- 홍콩 인권자료센터 다가, 인권운동사랑방 방문 “아시아 지역의 정보는 아시아에서”/95.7.15 1 445/ 140
- 서준식씨 『자생의 정열』 출간/95.8.30 2 475/ 208
- ARRC, 인권교육 워크샵 개최/95.8.31 1 476/ 209
- ARRC 태국에서 인권교육가 워크샵 진행, 참여자 중심의 인권교육 공동훈련/95.10.5 2 497/ 262

21. 행형

- 대전교도소 장기수들의 건강실태/95.7.14 1 444/ 138
- 서울지방변호사회, 행형실태 조사 발표 “교도소는 생활하기 상당히 곤란”/95.7.15 2 445/ 141
- 서울구치소 박장로에 비인도적 처우, 병사없고 심장병 환자 독방 수감/95.9.26 1 491/ 246

22. 일반

-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사망/95.6.10 1 421/ 88
- 민자당 반대 시위 구속 광주경찰, 전남대생 8명/95.6.24 2 431/ 109
- 동성애자들 권리 선언 동성애자인권운동협회 결성/95.6.28 2 432/ 111
- 방위비 삭감, 사회복지 예산 증액해야, 방위비 삭감 연대회의, 건의서 보내기로 /95.7.13 2 443/ 137
- 8.15행사위, 평화협정 체결로 군축·분단 종식 주장 /95.7.27 1 452/ 154
- 시민청 의장 절도혐의로 구속/95.8.1 1 455/ 165
- 일본문화원 화염병 시위 관련 학생 6명 집행유예/95.8.19 1 468/ 193
- 방위비연대회의, 방위비12.5% 증액 반대, 방위비 삭감, 복지예산 증액 요구/95.8.19 1 468/ 193
- 박현채씨 19일 사회장/95.8.19 2 468/ 194
- 연세대총학 ‘성정치’ 공개강좌 마련/95.9.5 1 479/ 219
- <통신원 특별기고> 5월정신의 예술적 승화-안티비엔날레/95.9.22 2 489/ 243
- <자료>정부 농민감시·탄압 사례 - 농민탄압 공무원에 무더기 표창/95.9.27 2 492/ 249
- <자료>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험, 서울지법 판결문 요약/95.10.4 2 496/ 260
- 권종대 전 전국연합의장 투병중/95.9.14 2 483/ 230

23. 장애인

- ‘지방자치시대 장애인 복지정책’ 45대 과제 주요항목/95.5.25 3 410/ 63
- 성동경찰서 구속 노점상 박영생씨 진료 받아/95.8.30 1 475/ 207
- 장애노점상추진위원회란?/95.8.30 1 475/ 207
- 장애노점상 구속·경찰폭행 규탄 집회, 생존권 보장요구/95.9.5 1 479/ 219
- MBC 종합병원 ‘생의 조건’편 줄거리 요약/95.9.14 1 483/ 229
- 장애인전용복지공장은 분리고용정책-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 고용 문제점 /95.9.27 1 492/ 248

<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>

- 장애인 단체들, 45개정책과제 제시/95.5.20 1 407/ 55
-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,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/95.7.3 1 437/ 124
-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, 연계고용제 제정의 요구/95.7.20 2 447/ 145
- 서울에서 한일 장애인국제대회 개최/95.7.26 2 451/ 153
-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, 제9기 장애우 대학 개최/95.8.17 2 466/ 190
- 한·일장애인국제교류대회, 한·일 장애인의 삶의 질 현저히 낮아/95.8.30 2 475/ 208
- 한·일 장애인 공동선언문/95.9.2 2 478/ 218

·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“MBC 종합병원 장애인 생명경시” 사과요구/95.9.14 1 483/
229

24. 기타

· <창간 2주년 격려글 모음>-함께 걸어온 2년, 인권의 파수꾼에서 길잡이로/95.9.7 3·
4 481/ 225·226

<주간인권호름>

- 주간인권호름/95.6.7 2 418/ 83
- 주간인권호름/95.6.13 2 422/ 91
- 주간인권호름/95.6.20 2 427/ 101
- 주간인권호름/95.6.28 2 432/ 111
- 주간인권호름/95.7.4 2 436/ 123
- 주간인권호름/95.7.11 2 441/ 133
- 주간인권호름/95.7.19 2 446/ 143
- 주간인권호름/95.7.25 2 450/ 151
- 주간인권호름/95.8.1 3 455/ 166
- 주간인권호름/95.8.8 2 460/ 177
- 주간인권호름/95.8.22 2 469/ 196
- 주간인권호름/95.8.29 2 474/ 206
- 주간인권호름/95.10.4 2 496/ 260
- 주간인권호름/95.10.10 2 500/ 269

<월 총목차>

- <인권하루소식> 5월분 총목차(394-414호)/95.6.1 2·3 415/ 76·77
- <인권하루소식> 6월분 총목차(415-434호)/95.7.1 2·3 435/ 120·121
- <인권하루소식> 7월분 총목차(435-454호)/95.7.29 2·3 454/ 160·161
- <인권하루소식> 8월분 총목차(455-476호)/95.8.31 2·3 476/ 210·211
- <인권하루소식> 9월분 총목차(477-495호)/95.9.30 2·3 494/ 253·254

<인권하루소식> 합본 V

펴낸날·96년 2월 13일

펴낸이·서준식

펴낸곳·안철운동사랑방

주소 140-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-12 조양빌딩 3층
대표전화 715-9185 팩스 715-9185
통신 ID rights(천리안, 하이텔)

값 1만원